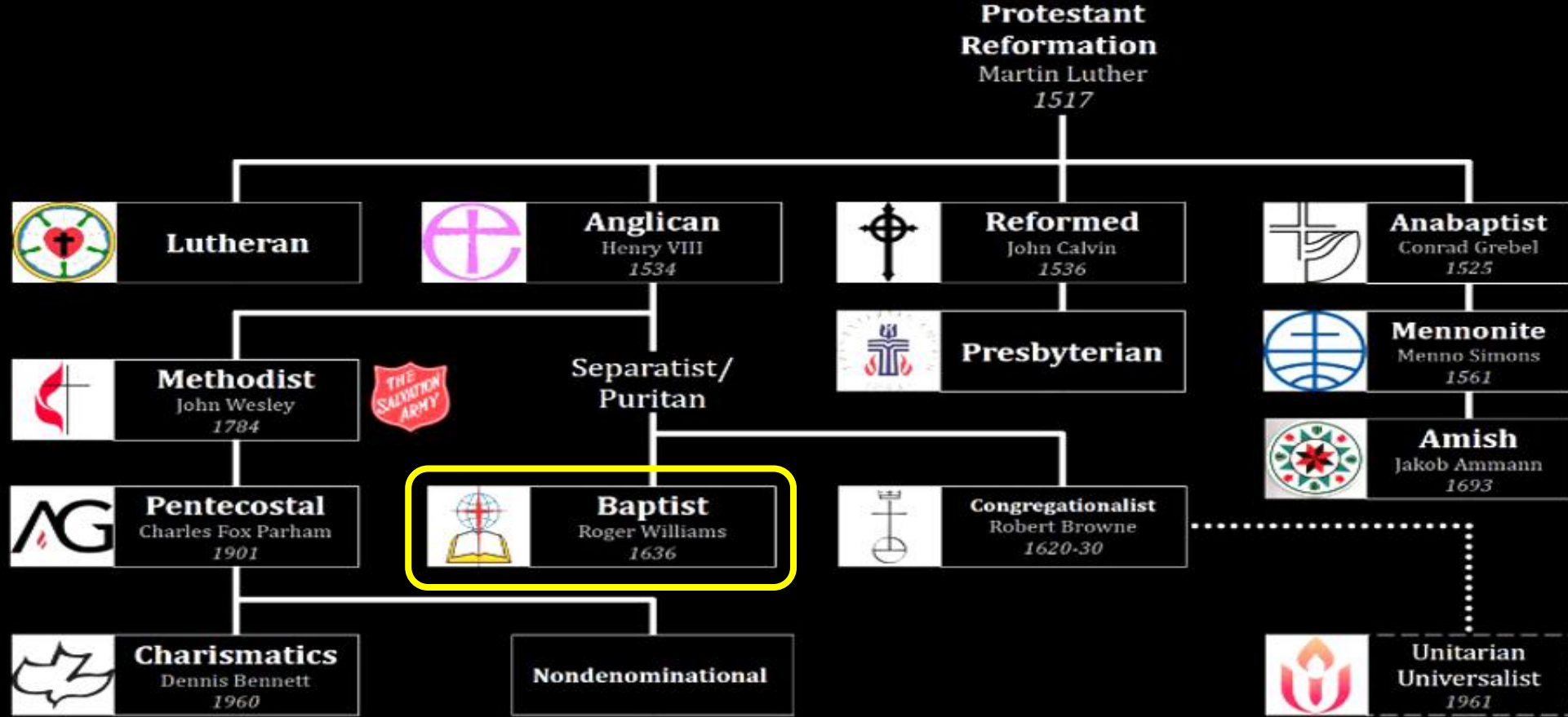


방어와 갈등 Defense and Conflict

알렉산더 캠벨 대(對) 침례교:
침례교인들과의 격렬한 충돌
Bitter Clashes with Baptists

영국 침례교회는 17세기 초에 존 스마이
스(John Smyth)와 토마스 헬위즈
(Thomas Helwys)의 분리주의운동으로,
미국 침례교회는 로저 윌리엄즈(Roger
Williams)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Second Great Awakening
1790-18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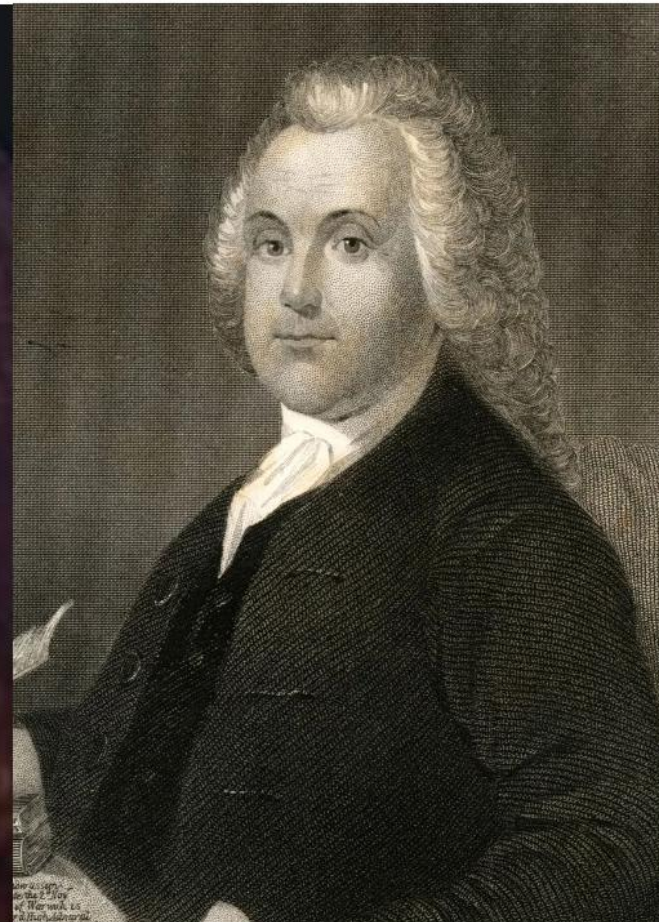
침례교 목회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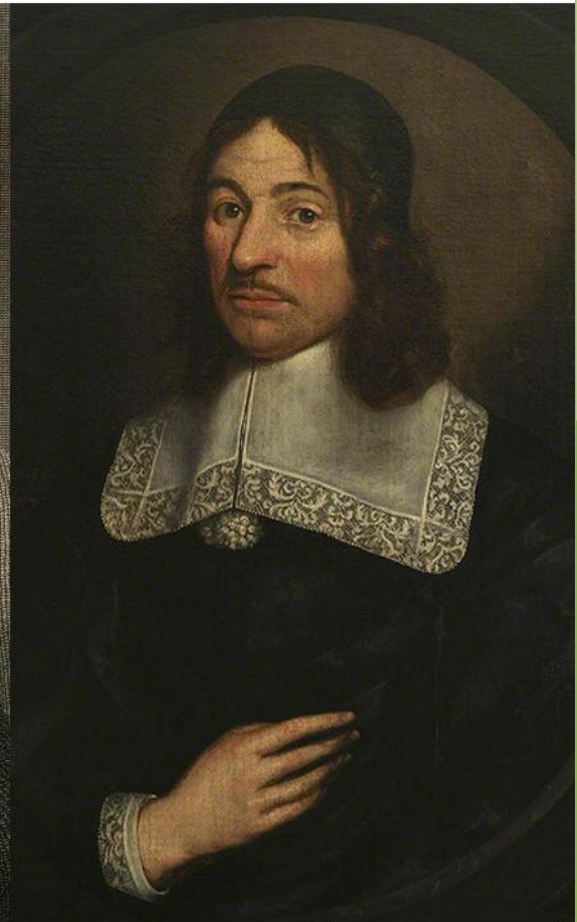
John Smyth(c.1554-c.1612)
전 영국 성공회 사제
1608년 암스테르담으로 망명
일반 침례교회 설립



Thomas Helwys
(c.1575-c.1616)
변호사, 목사, 존 스미스와
함께 일반 침례교회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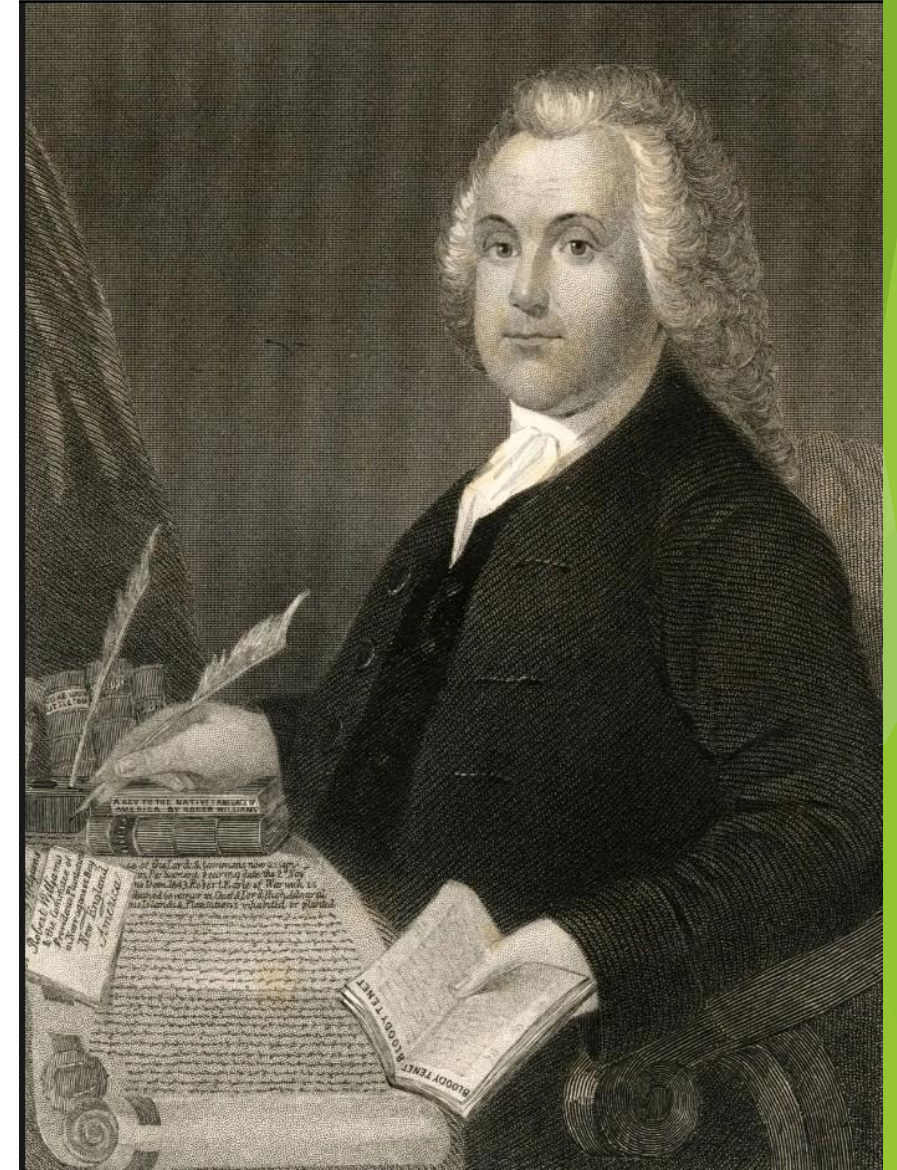


Roger Williams(c.1603-1683)
1636년 미국 로드 아일랜드에
식민지 설립. 1638년 미국에
최초 침례교회인 제일 교회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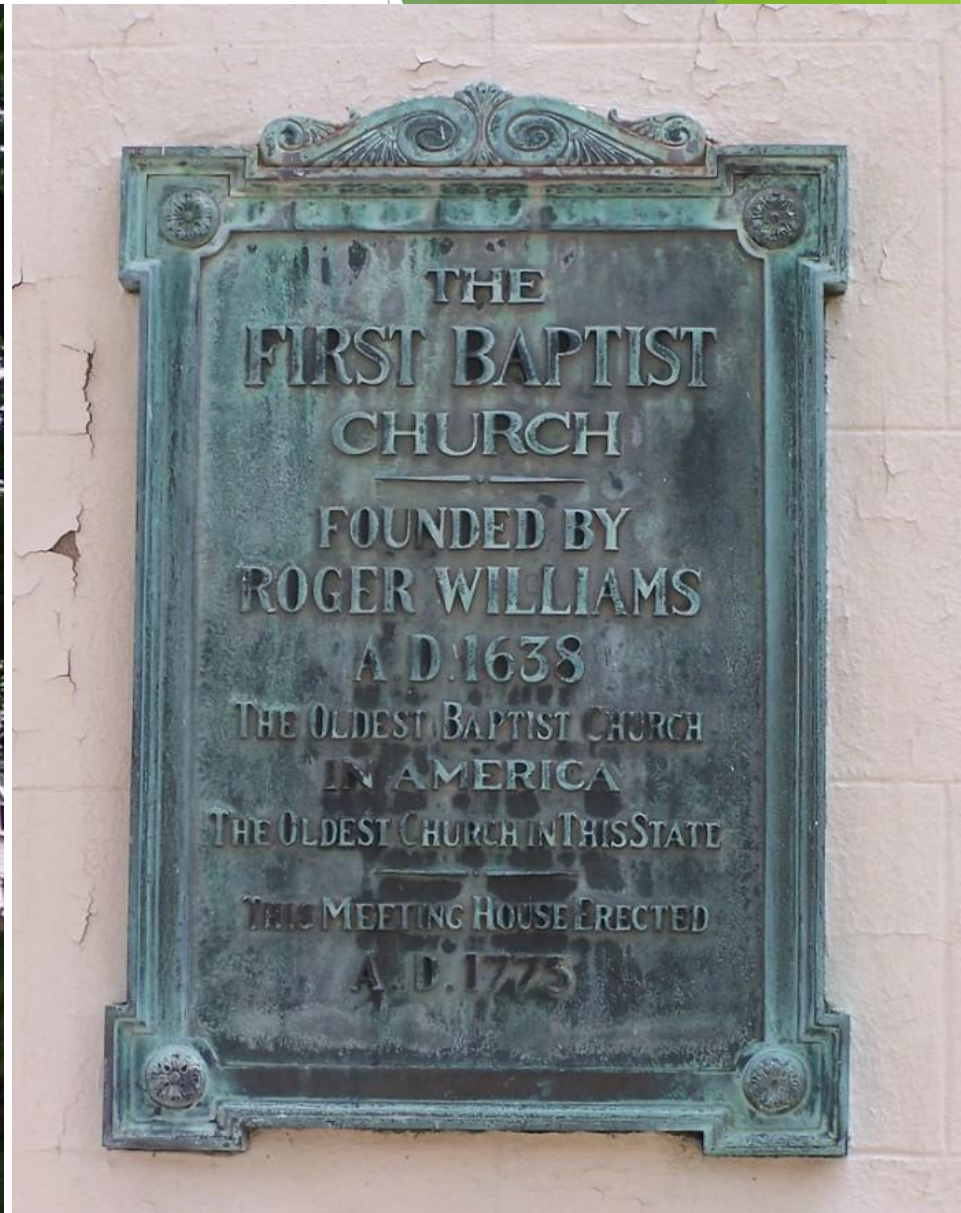
William Kiffin(1616-1701)
런던에 개척한 침례교회에서
52년 목회. 존 스펴즈버리와
함께 특수침례교회 설립

First Baptist Church(1638) in Providence Plantations, Rhode Island by Roger Willia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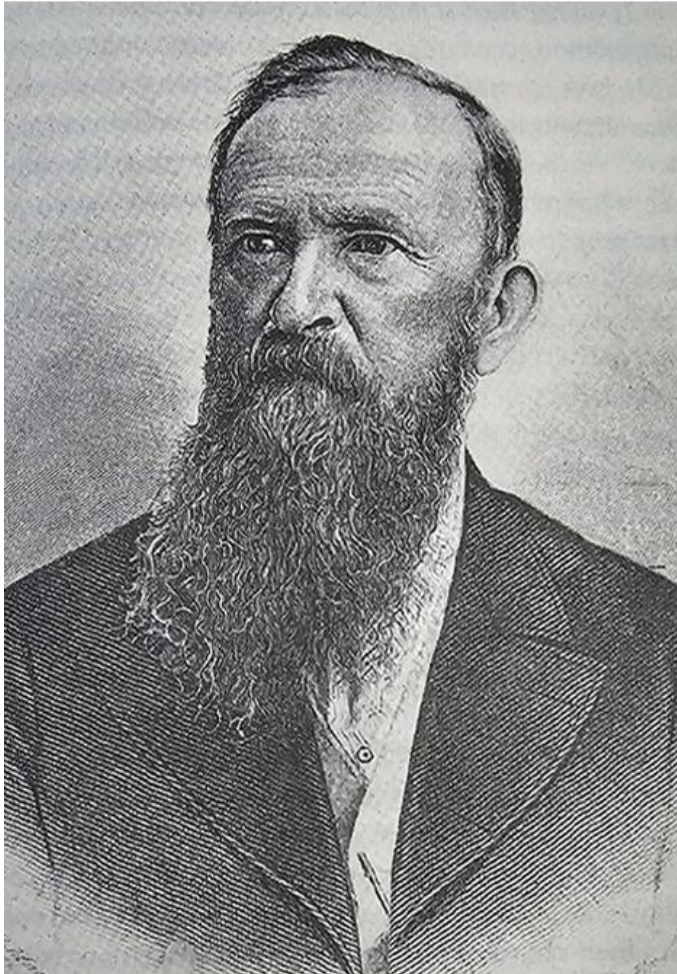




일반침례교회, 특수침례교회, 침례교세계연맹

- ▶ **일반침례교회들** : 존 스미스, 토마스 헬위즈; 일반 속죄설; 신자는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다; 중앙집권적; 침수례; 세속 정부에 적대적; 맹세와 무기 사용 반대; 공무원을 회원으로 불인정; 성령의 감동감화에 따른 즉흥적 예배 존중.
- ▶ **특수침례교회들** : 존 스피لز버리(John Spilsbury, 1593-1668), 윌리엄 키피(William Kiffin, 1616-1701); 제한 속죄설; 신자는 은혜로부터 떨어질 수 없다; 개교회주의; 유아세례에 반대; 신자 침례 시행; 세속 정부에 우호적; 맹세와 무기 사용 허용; 공무원을 회원으로 인정; 형식적 예배 중시.
- ▶ **침례교세계연맹(BWA, Baptist World Alliance, 1905, 영국)** : 칼뱅주의 쇠퇴, 개방 만찬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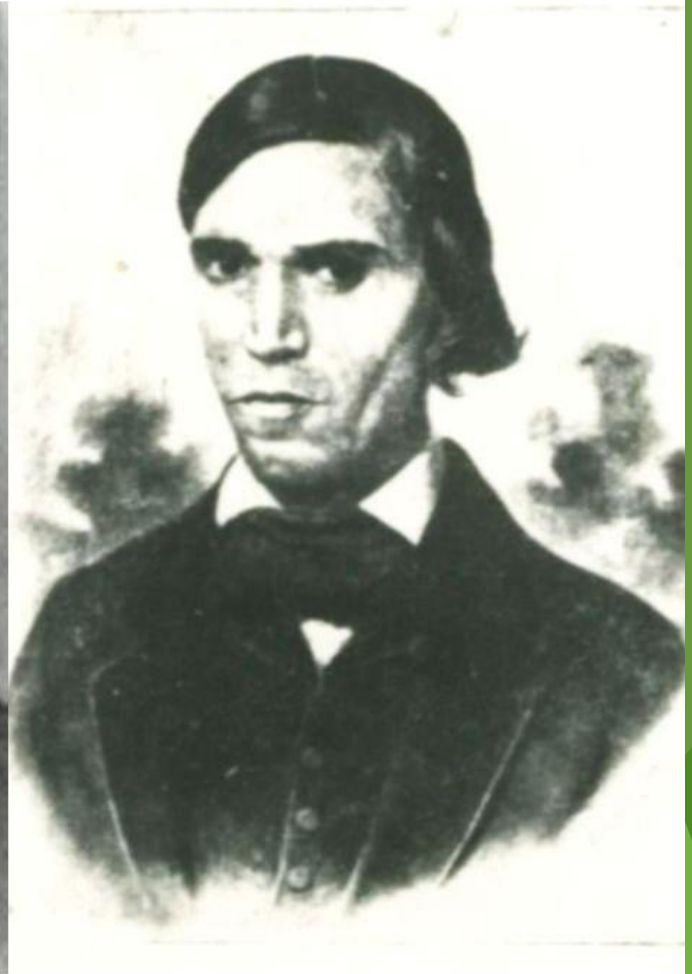
침례교 지계석주의 3인방



제임스 로빈슨 그레이브스
James Robinson Graves
1820-1893
목사, 출판인, 토론가
The Tennessee Baptist 발행



제임스 매디슨 펜들턴
James Madison Pendleton
1811-1891
목사, 교육자, 신학자
An Old Landmark Reset 저자



아모스 쿠퍼 데이턴
Amos Cooper Dayton
1813-1865
의사(치과개업), 목사
그레이브스에게 영향 받음

침례교회들에서의 지계석주의(Landmarkism) 추이(推移)

- 지계석주의(Landmarkism)란 말은 “네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잠 22:28)에서 유래하였다. 지계석주의자들은 “네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침례교의 신앙체계로 받아들였다.
- 지계석주의는 침례교회 전승설(successionism)에 따라 침례교회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참 교회이며, 그리스도의 왕국과 동일 연속선상에 있고, 모든 세대에 걸쳐 부단한 역사적 전승(침례교회의 침수례만 인정, 폐쇄 만찬 등)으로 존재해 왔다는 ‘승리주의’(triumphalism) 주장이다.

침례교회들에서의 지계석주의(Landmarkism) 추이(推移)

- 100여년 전까지는 **침례교회 전승설(Baptist Church Successionism)**이 영국과 미국의 침례교회에서 통설로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학술적인 이론으로서는 이미 **폐기된 학설**이다.
- **침례교회 전승설**에 따른 **지계석주의(landmarkism)**나 **‘승리주의’(triumphalism)**는 오늘날 더 이상 주장되지 않는다.

승리주의_배타주의에 대해서

- 승리주의(triumphalism)는 특정 교리, 문화, 사회체제가 모든 다른 것들보다 우월하다거나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식의 태도나 신념을 말한다. 승리주의는 연합을 꾀하는 교리가 아니라, 당파들의 특정 태도들이나 신념체계들을 특정 짓는 말이다.
- ‘승리주의’(triumphalism)와 비슷한 표현으로 배타주의(Exclusivism)가 있다. 승리주의가 좁은 파당 간의 개념인 반면, 배타주의는 포용주의(Inclusivism) 및 다원주의(Pluralism)와 함께 쓰이는 넓은 종교 간의 개념이다.

승리주의_배타주의에 대해서

- **승리주의**는 특정 교리나 주의(主義)가 절대적이란 식의 당파적 태도나 신념을 말하고, **배타주의**는 특정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식의 신념을 말한다.
- 그러나 이런 종교적 신념이 보수파에만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 이런 신념은 중도파나 진보파 모두에게 있는 것이고, 만일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신념이 전혀 무가치한 것이거나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전략적인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승리주의_배타주의에 대해서

- 승리주의나 배타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거나 신념체계를 힘써 전달하게 하는 **당파적 동력(dynamism)**이다.
- 그런 당파적 동력을 가장 잘 활용하는 집단이 진보파이고, 보수파는 진보파만 못하다. 신념이나 신념체계에 관한한 보수파도 문제이지만, 진보파일수록 더 극단적인 행동을 취한다. 만일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가 중도파이거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승리주의_배타주의에 대해서

- 크고 작은 종교집단들, 심지어 그것이 정통개혁주의이든지, 진보주의이든지, 또는 교리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여타의 이단 종파들이든지 간에, 처음 시작될 때의 정황들을 살펴보면, 그 동력이 바로 이 승리주의나 배타주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어느 종교 집단이나 정치 집단이든지 간에 승리주의나 배타주의 없이 집단을 제대로 형성한 사례는 없다.
- ‘포용주의’를 표방하는 집단일수록 발전이 더딘 이유는 그 집단을 이끄는 동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승리주의_배타주의에 대해서

- 반면에 배타주의 집단일수록 발전이 빠른 이유는 그 집단을 움직이는 동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승리주의나 배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집단은 정상적이거나 건강한 집단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모든 운동은 정(正)에 대한 반(反)으로 시작하여 합(合)으로 진화한다.** 그렇더라도 목욕물과 함께 아기까지 내다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각 집단이 신념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일은 집단 간의 상호발전에 유익하다.

스톤-캠벨운동권에서의 승리주의(triumphalism) 추이(推移)

- 그리스도의 제자들(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은 1870년대 이전까지 배타적이고 고립적이며 승리주의적인 선교정책들을 써왔다.
- 그러나 1874년 ‘그리스도인 여성 선교회’(CWBM)와 1875년 ‘해외 그리스도인 선교회’(FCMS)가 설립된 이후로는 에큐메니컬 운동(창립멤버)에로까지 활동영역을 넓혀 나갔다. 이들 선교단체들의 열린 회원제 수용은 1909년에 개최된 100주년 대회 때 진보와 보수가 분열된 양상을 표출하였다.

스톤-캠벨운동권에서의 승리주의(triumphalism) 추이(推移)

- 그리스도의교회들(Churches of Christ)은 1940년대 중반부터 목사와 편집자들이 저술하던 역사로부터 학문적 훈련을 받은 역사가들이 저술하는 역사로 일대 전환이 일기 시작하였다.
- 그 결과 그리스도의교회들의 역사기술은 스톤-캠벨 운동의 존재 이유였던 환원(복원)에 대한 배타적 집중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승리주의(triumphalism)의 옛 형태를 단념하기에 이르렀다.

- 그리스도인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도 그리스도의교회들에서의 추이를 그대로 겪으면서 승리주의(triumphalism)의 형태들을 단념하였다.

참고: 제임스 멀치의 '온전한 승리주의'

- 로마 가톨릭교회의 신시내티 주교인 존 퍼셀(John Baptist Purcell)과 펼친 1837년 토론에서 알렉산더 캠벨이 추적한 논쟁의 여러 방식 중 하나에서 영감을 받은 제임스 드포레스트 멀치(James DeForest Murch)는 <오직 그리스도인들: 환원운동사>

- (Christians Only: A 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 1962) 서문에서 스톤과 캠벨부자(父子)의 환원 운동은 권위와 의식을 존중하는 교권주의(high-church ecclesiasticism)와 배도를 무시한 다른 운동들의 계통 속에서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 같은 운동들을 하나님께서 꾸준히 일으키셨는데, 그들은 가톨릭과 정교회를 회피하고 “사도 전통의 계승”(apostolic succession) 곧 신약성경기독교(New Testament Christianity)를 증언한 (때때로 박해를 받았던) 증인들이었다(*침례교회들의 지계석주의와 비교*).

- 그들 중에는 프리실리안파(Priscillians)와 보고밀파(Bogomils)가 있었고, 종교개혁이전시대에 카타리파(Cathari)와 왈도파(Waldenses)가 있었으며, 종교개혁 이후 시대에 재침례파(Anabaptists)와 할데인(Haldane) 형제들이 시작한 스코틀랜드의 환원운동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 멀치의 온건한 승리주의(triumphalism)의 관점에서 볼 때, 스톤-캠벨 운동은 이들 환원운동들의 정점에 선 계승자였다. 그러나 그 자체는 전적으로 환원운동의 참된 소명에 미칠 수 없는 것이었다. **“만약 ‘작금의 개혁’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정녕코 또 다른 운동을 일으키실 것이다.”**고 멀치는 기술하였다.

- **프리실리아누스**는 스페인 아빌라의 주교로서 ‘성경말씀에 따른 개혁’을 주장하다가 383년에 죽임을 당하였다. 그의 글들과 가르침이 소각 당하여 남은 것이 거의 없지만, 그의 사망 후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와 투르의 주교 마르티노 등이 그의 무죄를 주장하고 명예회복을 위하여 제소한 재판기록이 1886년에 발견됐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교회가 교권과 형식에 치우쳐 가는 것을 경고하여 성경연구와 성만찬 준수를 강조하였으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순수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렀다. 프리실리안파(Priscillians)를 공박하기 위해서 주후 400년에 스페인 톨레도에서 종교회의가 열리기도 하였다.

- **보고밀파(Bogomils)**는 8-9세기에 성경연구운동으로 시작되었으며, 남은 기록은 대부분이 재판기록 뿐이다. 그러나 그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나레크의 그레고리(Gregory of Narek)라 불리었으며, 역시 무서운 핍박을 받아 죽었고, 세상은 이들을 ‘하나님의 벗’(Friends of God)이라 불렀다. 이들은 성모 마리아상과 같은 우상을 반대하였다.
- **카타리파**는 9세기경 발칸반도와 그 주변 섬에서 형성되었고, 중세 유럽 여러 지역에서 발흥하다가 14-15세기경 소멸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순결한 사람’(Katharoi)이라고 불렀다. 그들의 주장은 복음적이고 청빈적인 교회를 꿈꾸던 많은 개혁가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 프랑스 리옹의 **발두스(Petrus Waldus, ?~1217)**는 청빈(淸貧)을 실천하기 위해 그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고, 지지자들과 함께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가난한 자들’(pauperes Christi) 혹은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Poor men of Lyon)이라 불렀으며, 주교의 탄압에 대항하였다. 그의 사상은 청빈과 더불어 교황권위의 부정, 연옥의 부정, 평신도에 의한 사죄(赦罪)의 인정, 죄에 빠진 사제가 거행한 미사의 성사성(聖事性) 등을 부정하였다. 그의 사상은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등지로 확산되어 종교개혁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 **재침례자들은** 유아세례, 이단자에게 받은 세례, 박해 때 배교했던 성직자에게 받은 세례 등을 부정하였고, 스스로 믿고 신앙을 고백한 후에 **침례(believer's baptism)**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성경의 권위회복을 강조하였고, 신약성경교회로의 환원을 역설하였다.



독일 Eifel의 재세례인 부인,
마리아 반 몬주를 익사시키는 장면

Maria van Monjou. 1552.



네덜란드의 귀족 부인 재세례인 마리아 반
베쿰과 올케 우르술라를 화형시키는 장면

Maria van Beckum, en Urfel, haers Broeders Wif. 1544.

- **로버트 할데인(Robert Haldane/1764-1842)**은 스코틀랜드의 부흥목사로 할데인 운동의 지도자였다. 그는 형제 로버트 할데인과 함께 스코틀랜드 교회를 탈퇴하였고, **인위적 가르침을 버리고 사도시대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성경만이 신앙의 표준임을 강조하였고, 그리스도를 유일한 교회의 머리로 섬겼으며, 교회정치로는 개 교회가 다수 장로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회중주의를 주장하였고, 유아세례를 배제하고 침수세례를 베풀었으며, 매 주일마다 성만찬을 거행하였다.

- **대각성운동(the Great Awakening)**은 1720-40년대 사이에 미국의 영국식민주들에서 일어난 신앙부흥운동을 말한다. 이 부흥운동은 주로 칼뱅주의였던 네덜란드 개혁교회, 회중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일부 성공회 등에서 일어났다. 이 운동을 이끈 주요 인물은 **조지 휘트필드(George Whitefield)**로서 성공회 사제였으며, 1739~40년에 미국을 방문하여 야영집회들을 열어 설교했다. 또 다른 주요 인물인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로서 회중교회 목사였으며, 학자이자 변증가였다. 그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움을 얻는다고 설교하여 호응을 얻었다.

- 제2차 대각성운동(the Second Great Awakening)으로 알려진 부흥운동은 1790년대 뉴잉글랜드에서 시작되었다. 제1차 대각성운동 때만큼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대학과 신학교들이 세워졌고 선교협회들이 조직되었다. 이 기간 동안 켄터키주에서도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아 야영집회 방식의 부흥운동이 발전했으며 19세기 내내 미국 개척지에 영향을 주었다. 켄터키주 부흥운동(the Kentucky revival)의 주역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인 운동’(Christian - Only Movement)을 펼친 발톤 스톤(Barton W. Stone)이다.

미국 침례교의 대표적 신앙고백들

- ▶ 침례교인들은 “신앙고백의 사람들”로 불렸지만, 신앙고백이 신조가 되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는 것에 반대하였다.
- ▶ **필라델피아 신앙고백(Philadelphia Confession of Faith, 1742년)** – 영국 특수침례교회들의 제2차 런던신앙고백(1677년)을 계승;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1646년)에 영향을 받아 **칼뱅주의적 신앙**이 지배적이다. **필라델피아 신앙고백의 특징**들: 성도의 견인, 신앙 양심의 자유(분리주의); 신약성경의 두 가지 의식(ordinances) 곧 침례와 주의 만찬(폐쇄만찬); 만인 사제; 회중정치.

- ▶ **뉴햄프셔 신앙고백(New Hampshire Confession of Faith, 1833년)** - 자유의지 침례교회; 아르미니우스주의; 온건한 칼뱅주의; 지계석주의(Landmarkism) 확산에 크게 기여.
- ▶ **침례교인의 신앙과 메시지(Baptist Faith and Message, 1925년)** - 남침례교 총회(Southern Baptist Convention)에서 채택; 뉴햄프셔 신앙고백과 과학과 종교에 관한 진술(1923년)에 기초; **진화론 논쟁**이 발단.
- ▶ **침례교인의 신앙과 메시지(Baptist Faith and Message, 1963년)** - 남침례교 총회(Southern Baptist Convention)에서 채택된 두 번째 신앙고백; **진보신학**이 발단;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입장을 견지하도록 1925판을 재조정; **온건한 칼뱅주의**; 아르미니우스주의 내포; 지계석주의와 진화론과 자유주의 사상을 경계.

침례교회는 무엇을 믿는가

참고: 교회진흥원, <침례교 직분자 훈련총서>(요단)

'BAPTIST'로 본 침례교의 7가지 신앙

- **B** : Believer's Priesthood (신자의 제사장직/ 萬人사제)
- **A** : Autonomy of the Local Church(자치적 지역교회/ 회중정치)
- **P** : Primacy of Scripture (성경의 절대적 권위)
- **T** : True believers only in the Church(교회 내 참 신자만의 회원권)

‘BAPTIST’로 본 침례교의 7가지 신앙

- **I** : Individual Competency of the Soul(영혼의 개인적 자율성/ 영혼의 개별 능력)
- **S** :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교회와 국가의 분리)
- **T** : Two Ordinances (두 가지 거룩한 의식)
 - 1) 신자의 침례(Believer's Baptism)
 - 2) 기념적 주의 만찬(The Lord's Supper as Memorial)

침례교회는 무엇을 믿는가

- 첫째, **신자의 제사장직**이란 모든 신자가 제사장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 둘째, **자치적 지역교회**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성령님께서 개 교회들을 인도하심으로 지역교회가 인사, 재정, 행정 등의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며 지방회나 총회는 교제와 선교 등을 위한 협력모임으로 여긴다는 것.
- 셋째, **성경의 절대적 권위**는 성경을 믿음과 실천의 절대규범으로 삼는다는 것.

침례교회는 무엇을 믿는가

- 넷째, **교회 내 참신자만의 회원권**은 교회의 회원권은 단지 교회에 출석하거나 헌금, 봉사 등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증거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부여한다는 것.
- 다섯째, **영혼의 개인적 자율성**은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율성에 따라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고, 스스로 섬김의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
- 여섯째, **교회와 국가의 분리**는 개인의 자율성의 원리의 연장선상에서 국가조차도 교회를 지배하거나 억압할 수 없으며, 교회 역시 국가권력을 이용해 신앙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

- 일곱 번째 **두 가지 거룩한 의식**은 신자의 침례와 기념적 주의 만찬 두 가지만 침례교회들의 의식으로 인정한다는 것.
- 침례교는 **‘신자의 침례’ (Believer's baptism)**를 강조. 침례교는 유아세례(침례)를 베풀지 않는다.
- 침례교는 **침수례**를 행한다.
- 침례교는 침례를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받는 것**이지, 그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스톤-캠벨 운동권에서는 대체로 믿음, 회개, 신앙고백, 침례를 중생을 위한 믿음의 행위 혹은 중생의 과정으로 본다. 비교:** 수정/임신, 배아, 태아, 출산; 만남, 교제, 고백, 결혼).

침례교회는 무엇을 믿는가

침례교가 침수례 베푸는 다섯 가지 목적

- 첫째, 중생한 성도의 신앙고백 (스톤-캠벨운동권에서는 대체로 믿음, 회개, 신앙고백, 침례를 중생을 위한 믿음의 행위 혹은 중생의 과정으로 본다. **비교:** 수정/임신, 배아, 태아, 출산; 만남, 교제, 고백, 결혼).
- 둘째,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 셋째,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본을 따름
- 넷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
- 다섯째,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기 위함

침례교의 주의 만찬의 빈도수

- 주의 만찬을 행하는 빈도수는 침례교회마다 다르다. 분기별로 한번 또는 두 번하는 교회도 있고, 매월 한 번 또는 드물지만 매주 하는 교회도 있다.
- 침례교회는 전통적으로 매주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
- 개 교회는 주의 만찬을 누가 주재하고, 얼마나 자주하며,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일부 교회들은 만찬을 교회 회원(침례교인)들만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다수의 교회들은 “신앙과 질서가 같은” 다른 교회들의 회원들도 참여를 허락한다.

침례교회는 신자의 영원한 안전을 믿는다

이를 일컬어 **‘성도의 견인’**(Perseverance of the Saints), **‘궁극 구원의 교리’** 혹은 **‘신자의 영원한 안전’**(Eternal Security of Believers)이라고 한다.

(스톤-캠벨운동권에서는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회개를 지속하는 한(限)에서 ‘성도의 견인’ 혹은 ‘신자의 영원한 안전’을 믿는다)

1850년대 침례교 지계석주의자 James Graves가 본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Alexander Campbell의 입장

- 그레이브스는 “캠벨파는 침수세례를 받았지만 성경적으로 침례를 받지 않았고, 그들이 침례를 받기 전에 성령께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지 않았으며, 성경적인 교회에서 자격을 갖춘 자가 침례를 집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1850년대 침례교 지계석주의자 James Graves가 본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Alexander Campbell의 입장

- 비버(Beaver) 침례교 협의회와 파문(破門)은 캠벨이 당시 회원으로 있던 마호닝(Mahoning) 침례교 협의회가 “성경의 많은 교리를 믿지 않고 부인”했다고 다음과 같이 **비난**하였다.
- **“침례 없이는 구원의 약속이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른 어떤 점에 대한 심사 없이 침례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 침례를 받기 전에 성령이 마음에 직접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 침례는 죄 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한다”**는 가르침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게다가 개혁자들은 “교회에는 **어떤 신조도 필요하지 않지만 성경말씀은 있는 그대로가 필요하다.**”

1850년대 침례교 지계석주의자 James Graves가 본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Alexander Campbell의 입장

- 1860년 그레이브스는 캠벨이 1812년 침례를 받았을 당시에는 침례가 죄 사함과 심령에 중생을 가져온다는 개념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캠벨은 이제 침례교회들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캠벨 씨 그 자신은, 자기 자신의 재판관으로서, 결코 성경적으로 침례를 받지 않았고, 그의 초기 목회자들이나 추종자들 중 누구도 침례를 받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불순한 샘에서 순수한 시냇물이 흘러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시대의 캠벨주의자들은 모두 침례를 받지 않았고 침례를 베풀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그 교파 전체가 침례를 받지 않았으므로 어떤 의미에서도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다.”**고 주장하였다.

1850년대 침례교 지계석주의자 James Graves가 본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Alexander Campbell의 입장

- 그레이브스는 **선택(예정)된 자들에게** 믿음과 회개와 거듭남이 거절할 수 없는 은혜로써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으로 주어진다고 믿었던 칼뱅주의자였고, **‘신자의 침례’**는 할례와 같이 하나님의 선민의 표징으로 보았다.
- 따라서 ‘신자의’에서 **‘신자’**란 침례 받기 이전에 이미 구원을 받은 자를 말하며, **‘침례’**란 구원 받은 자를 하나님의 선민으로 입증하는 표를 말한다.

1850년대 침례교 지계석주의자 James Graves가 본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Alexander Campbell의 입장

- 캠벨은 “은혜, 보혈, 믿음, 회개, 침례는 신성한 은혜의 사슬에서 다섯 가지 황금 고리를 구성하며,” 모두 침례 행위에서 완성된다고 주장하였다.
- 캠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협력)을 믿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자였고, ‘신자의 침례’ 때 죄 사함과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의 선물 곧 성령의 임재 내주 동거가 이뤄진다고 믿었다.

1850년대 침례교 지계석주의자 James Graves가 본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Alexander Campbell의 입장

- 따라서 ‘신자의’에서 ‘신자’란 침례를 받아 거듭나기 전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는 분으로 믿고 신뢰하며, 그 같은 진술에 동의하고 고백하며 죄를 회개한 자를 말하며, ‘침례’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는 시간 개념 또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딤후 3:5)의 장소 개념으로 본다.
- 여기서 ‘시간’이란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정이 이뤄진 후 배아(회개)와 태아(고백)의 과정을 거쳐 양수를 터뜨리고(물에서 나옴) 새 세상에 나오는 출산(침례) 시간을 말한다.

침례교운동

참고: '16세기 종교개혁운동과 침례교회'
(김승진 교수 / 침신대 신학과, 역사신학)

- 한 때(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미국 남부지방의 침례교인들 사이에서 **'지계석주의'(Landmarkism)운동**이 유행하였었는데, 이 운동의 주창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가 바로 침례교회였으며, 그 분이 받고 베푸신 침수례(Immersion Baptism)가 교회역사 상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침례교회 전승설'(Baptist Church Successionism)**이라고 부르는데, 이 학설에 의하면 침례교회는 종교개혁 이전에도 존재해 왔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아니라고 하였다.

- 20세기초까지 이 학설이 침례교인들 사이에서 통설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전세계 침례교 신학계에서나 역사학계에서 객관적이고 건전한 이론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침례교회는 종교개혁운동의 한 결실이고, 개신교회들 가운데 하나이며, 유아세례와 국가교회체제를 거부하는 자유교회운동에서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교회이다.
- 17세기초에 시작된 초창기 침례교운동은 루터, 칼뱅, 츠빙글리, 성공회 등 주류종교개혁가들(**관료후원적 종교개혁가들**)의 개혁운동과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른 대중(신자들)이 일으킨 운동이었다.

- **침례교운동은** 세상과 세속정부에 대해 적대적이고 소극적이었던 성경적 재침례파들을 넘어서서, 보다 더 신약성경적인 교회를 지향했던 운동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00여년 전까지는 **침례교회 전승설(Baptist Church Successionism)**이 영국과 미국의 침례교회에서 통설로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학술적인 이론으로서는 이미 **폐기된 학설**이다.
- **침례교운동은** 영국 국교에 반대한 분리주의자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피신한 암스테르담에서 재침례파들이 행한 ‘신자의 침례’에 영향을 받아 일으킨 운동이며, 중앙집권적 국교정치에 반대한 만큼 개 교회들의 자치권과 민주적 회중정치의 원리를 도입하였다.

- **침례교운동**엔 원래 지상에 지방회, 노회, 연합회, 선교단체, 연회, 총회 등의 기구들이 없었다. **오늘날 침례교**는 지역교회들 간의 교제와 협력을 위하여 이러한 기구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만, 그러한 기구들은 어디까지나 지역교회와 그 사역을 돕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미국 스톤-캠벨운동권에는 이러한 기구들이 없다. 이 운동권의 세 지류 중 하나인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에서만 1964년에 교단 재구성을 마치고 총회 조직을 갖추었다.
- **침례교운동**은 성직계급제도(Priestly Hierarchy)나 성직자 중심주의(Sacerdotalism)를 배격하였다.

- **침례교운동은** 교회가 ‘신자들의 영적인 공동체’ (Spiritual Body of Believers)여야 한다는 확신에서 시작되었다.

- **침례교운동은** 신약성경적 교회, 다시 말하면 콘스탄틴 황제의 밀라노 칙령 (Edict of Milan, 313) 이전의 순수했던 교회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The headquarters of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is shown on Wednesday, Dec. 7, 2011, in Nashville, Tenn.

알렉산더 캠벨의 침례교 가입

- Thomas와 Alexander Campbell 부자가 **Brush Run Church**를 시작한 날짜는 **1811년** 6월 16일이었고, 장로교 목사와 아들이었던 그들은 침례가 성경적이라는 확신을 갖고 **1812년 6월 12일** 침례교 목사 Mathias Luce로부터 **침례**를 받았다.
- Brush Run Church는 침례교인들의 강권에 따라 **1813년** 가을에 **Redstone Baptist Association**에 가입하였다.

알렉산더 캠벨의 침례교 가입

- **1816년** 9월 1일 28세 때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 1788.09.12 - 1866.03.04)이 Redstone Baptist Association에서 행한 긴 ‘**율법에 관한 설교**’(Sermon on the Law)로 인해서 서서히 침례교와 금이 가기 시작하였다.
- 알렉산더는 이 설교에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과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구약성경보다는 신약성경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알렉산더 캠벨의 침례교 가입

- 알렉산더는 장로교 목사 **John Walker**의 도전을 받아드려 **1820년** 6월 19-20일 양일간 오하이오 주 마운트 플레전트에서 침례에 대해 토론하여 크게 성공하였고, 이 성공을 바탕으로 **1823년** 웨스트버지니아 주 Wellsburg에 교회를 세워 **Mahoning Baptist Association**에 가입하였다.
- 알렉산더는 **1823년** 10월 15-21일 켄터키 주 워싱턴에서 장로교 목사 **William Latta McCalla(1788-1859)**와 침례에 관해 토론하여 또 다시 크게 성공함으로써 캠벨의 개혁교회들이 크게 성장하는 동력이 되었다.

알렉산더 캠벨의 침례교 탈퇴

- 알렉산더 캠벨은 <크리스천 뱅티스트>(Christian Baptist, 1823-30년)지를 통해 '옛 질서(직제)들의 회복'(A Restoration of the Ancient Order of Things)이란 일련의 기사들을 통해서 '신약성경 그리스도교 회복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쳤다.
- 캠벨은 1829년 4월 신시내티에서 무신론자 Robert Owen(1771-1858)과의 토론 및 1837년 1월 13-21일 가톨릭교 주교 John Baptist Purcell(1800-1883)과의 토론의 성공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다.
- 알렉산더 캠벨은 1830년 <새천년시대의 선구자>(Millennial Harbinger)지를 창간하였고, 월터 스코트와 함께 Mahoning Baptist Association를 탈퇴하였으며, 동년에 협의회도 해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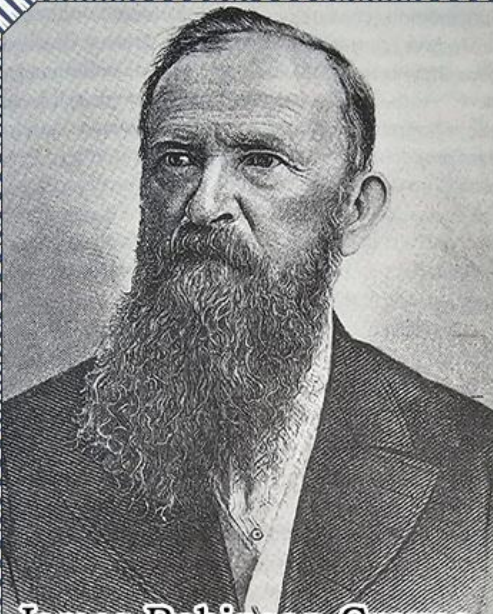
알렉산더 캠벨의 침례교 탈퇴

-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장로교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Nathan L. Rice** 목사(박사)를 내 세워 **1843년** 11월 15일(수)부터 12월 2일(토)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켄터키 주 렉싱턴 소재 Main Street Christian Church에서 16일간 침례와 회심과 성화에서의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격렬하게 토론하였다. 당시 알렉산더는 55세, 라이스는 36세였다.
- 그리고 **1850년대 기간**에 알렉산더 캠벨은 침례교 지계석주의자 **James Robinson Graves(1820-1893)** 및 지계석주의를 반대한 **Jeremiah Bell Jeter(1802-1880)**와도 격렬하게 논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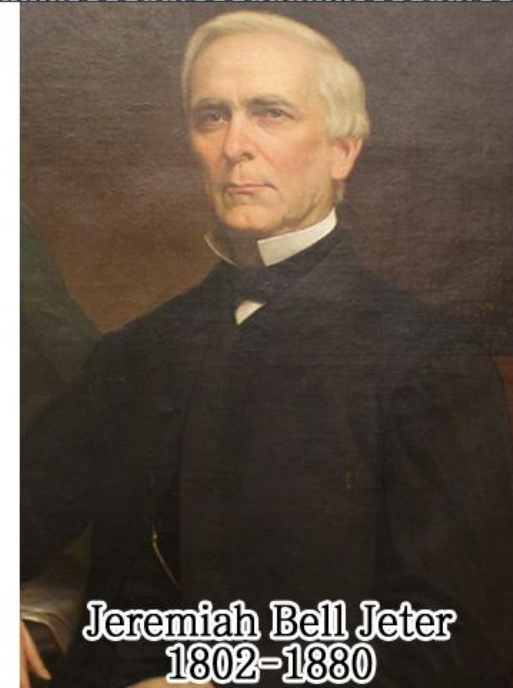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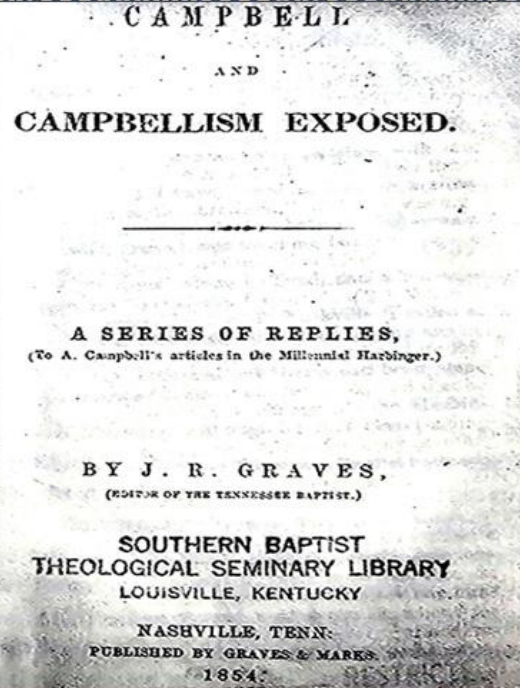
알렉산더 캠벨의 계시의 점진성

- 19세기 종교개혁가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 1788-1866)은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인류시대를 ‘별빛 시대’(=족장시대), ‘달빛 시대’(=모세시대), ‘새벽빛 시대’(=세례 요한),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태양빛 시대’(=그리스도교)로 구별하였다.
- 따라서 캠벨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구약은 신약의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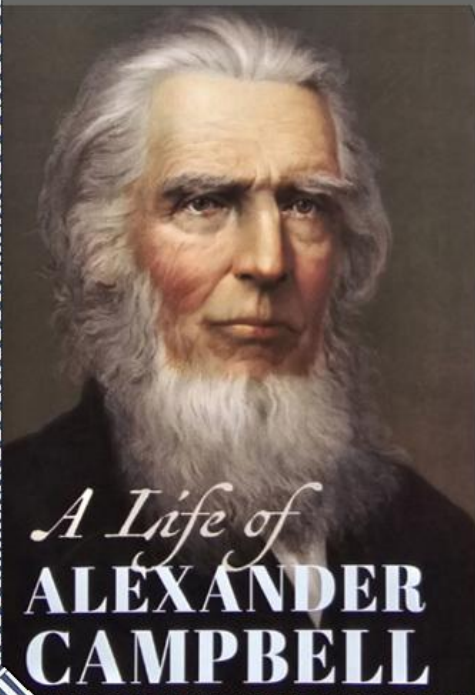
**알렉산더 캠벨 대對 침례교:
침례교인들과의 격렬한 충돌
Bitter Clashes with Baptists**



James Robinson Graves
1820-1893



Jeremiah Bell Jeter
1802-1880



A Life of
**ALEXANDER
CAMPBE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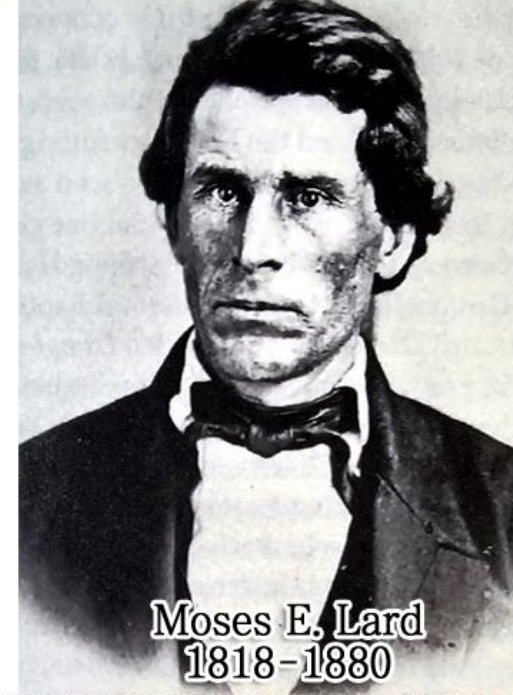
**Ad
Fontes**

— BACK TO THE BASIC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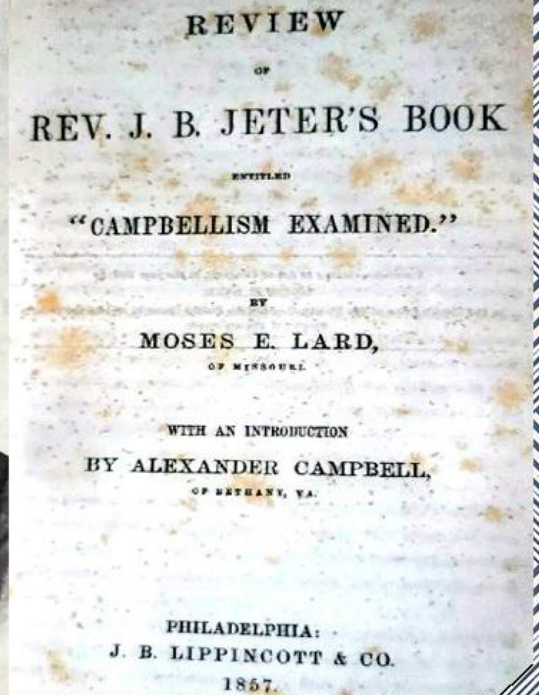
**To the Sources:
근원으로 돌아가자!**
- 르네상스시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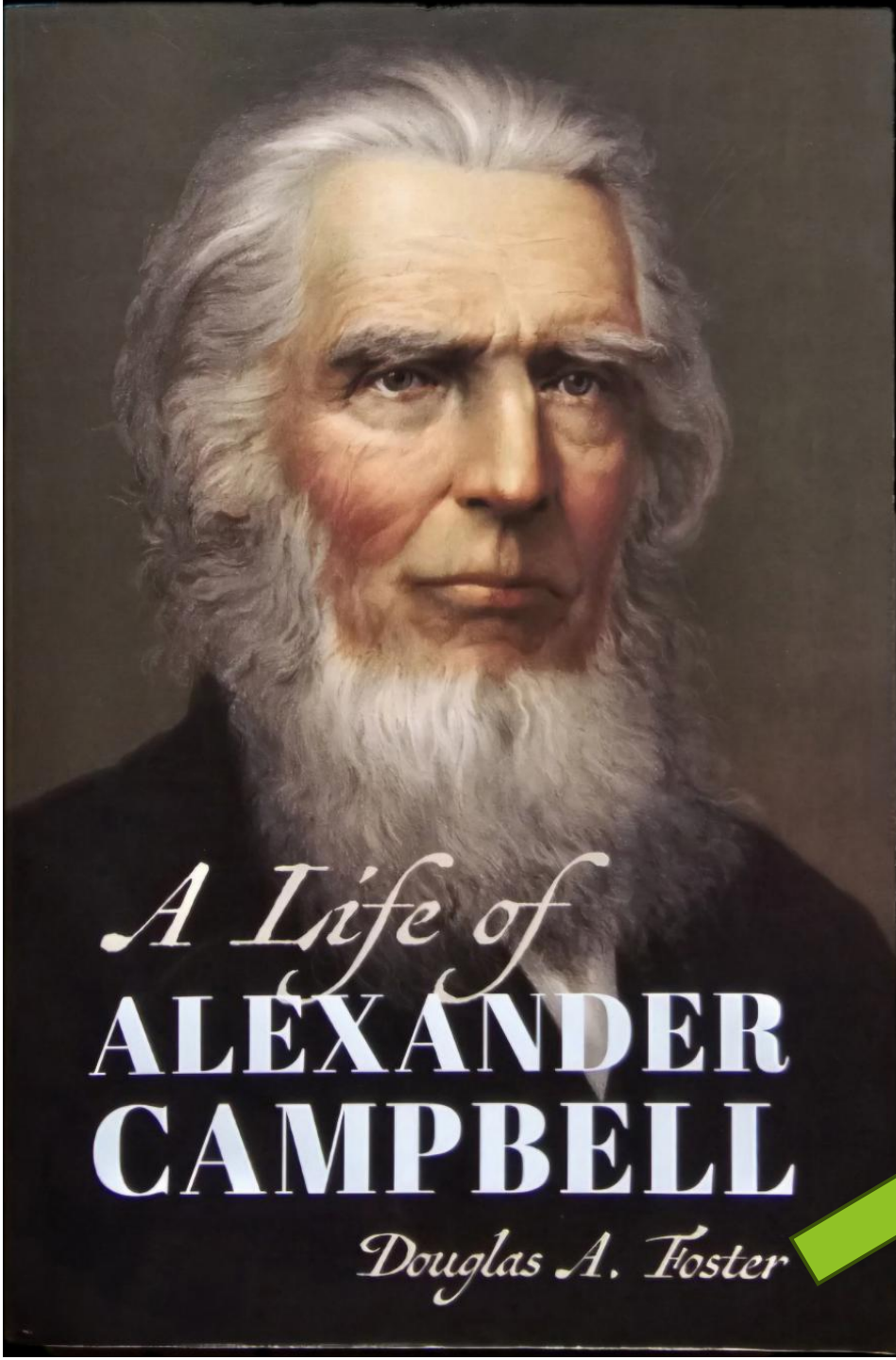
**To Restore the New Testament
Order of Things!
신약의 믿음과 실천을 회복하자!**
- 알렉산더 캠벨 -

침례교인들
대
알렉산더
캠벨과
개혁가들



Moses E. Lard
1818-1880





A Life of
**ALEXANDER
CAMPBELL**
Douglas A. Foster



제14장 침례교인들과의 격렬한 충돌

A Life of Alexander Campbell

by Douglas A. Foster, Abilene Christian University

- **캠벨의 개혁은 침례교와 많은 핵심 신념을 공유하였다. 공유하는 신념이 매우 많아서 그가 거의 20년 동안 침례교 교회 내에서 개혁 활동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였다. 성경에 대한 끈질긴 헌신, 지역 교회에 대한 강조와 계급 구조의 거부, 신자들의 침수세례 관행 - 이러한 공유된 입장은 캠벨과 그의 침례교 동맹 사이에 동질감을 형성하였고,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전국을 휩쓸 공동의 대의를 구축하는 데 좋은 징조였다.**

- 그러나 많은 침례교 지도자들은 알렉산더 캠벨이 침례교의 중심 원칙들 상충되는 신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금세 깨달았다. 비버(Beaver, 1829), 테이트 크릭(Tate's Creek, 1830), 도버(Dover, 1830) 침례교 협의회들에서 캠벨과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 발표한 “파문들”(Anathemas)에는 실제적이든 과장된 것이든 화해할 수 없는 차이가 명시되어 있었다. 모두 **성령의 역할, 인간의 책임**[역자 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협력)], **침례를 포함하여 캠벨의 구원에 대한 견해**에 대한 침례교의 인식에 초점을 맞추었다.

- 비버(Beaver) 침례교 협의회의 파문(破門)은 캠벨이 당시 회원으로 있던 마호닝(Mahoning) 침례교 협의회가 “성경의 많은 교리를 믿지 않고 부인”했다고 **비난**하였는데, 여기에는 “침례 없이는 구원의 약속이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른 어떤 점에 대한 심사 없이 침례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 침례를 받기 전에 성령이 마음에 직접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 침례는 죄 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한다”는 가르침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게다가 개혁자들은 “교회에는 어떤 신조도 필요하지 않지만 성경말씀은 있는 그대로가 필요하다”고 가르쳤다.

- 도버(Dover) 침례교 협의회 의 파문에는 캠벨이 목회에 대한 어떤 특별한 부르심이 없고, 성경말씀에는 어떤 신비가 없으며, 신앙 체험에는 어떤 정당성이 없고, 모세의 율법에 어떤 권위가 없다고 가르쳤다는 혐의가 추가되었다. [역자 주: 이러한 주장은 침례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협력)’을 부인하는 칼뱅주의에 근거한 것이었다. 19세기 침례교 내에서는 칼뱅주의가 우세하였던 것이다.]

참고: 칼뱅주의

TULIP 교리

- **T**otal Depravity
- **U**nconditional Elect
- **L**imited Atonement
- **I**rresistible Grace
- **P**erseverance of the Saints

틀립 교리

- 완전 타락
- 무조건적 선택
- 제한 구속
- 거절할 수 없는 은혜
- 성도들의 전인

참고: 장 칼뱅의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기독교강요〉에 따르면
‘Only for the Elect’

- 성경은 선택된 자에게만 특별 계시이다
- 그리스도의 죽음은 선택된 자만을 위한 것이다
- 복음은 선택된 자만을 위한 것이다
- 믿음과 회개는 선택된 자만을 위한 것이다
-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은 오직 선택된 자만을 위한 것이다
- 구원은 오직 선택된 자만(Only for the Elect)을 위한 것이다
- 따라서 선택된 자가 아니면 모든 행위가 헛되고 헛되다

- 파문(破門)은 교인들, 회중들 및 협의회들에게 캠벨 개혁가들이든 또는 반 캠벨 침례교 지도자들의 편을 들도록 압력을 가하였고, 그 결과 고통스럽고 종종 격렬한 분열로 이어졌다.

토마스 캠벨(Thomas Campbell)은 분리가 결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한다고 확신하였고, 캠벨 교회들이 침례교 형제자매들을 돕고 격려하며 저들의 교회들이 성장하면 기뻐할 것을 촉구하였다. 토마스 캠벨은 분열을 재촉한 것은 “레드스톤 협의회 몇몇 거만한 당파주의자들(partizans [sic])”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캠벨 개혁가들과 침례교도들의 세계관과 신학이 매우 유사했다는 사실은 그 차이를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고 경쟁의 골을 깊게 만들었다.

끊임없이 '연합'을 추구한 토마스 캠벨의 개혁가들을 향한 권고

“저는 여러분의 노고와 저들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 특히 우리 침례교 형제들 사이에서의 성공에 대해 매우 기쁩니다. 저들과 우리 사이에는 결코 어떠한 차이도 없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레드스톤 침례교 협의회는 몇몇 거만한 당파주의자들이 진실로 없었다면, 우리 모두가 한때 회원들이었던... 우리는 항상 그들을 우리의 형제들로 여기고 대했으며, 저에 관한 한 항상 그렇게 대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들을 형제들로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존경심으로 대하라고 겸허히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이 저들의 협의회들을 발전시키고 덕을 세우는 일에 능력껏 힘써 주십시오. 동료 인간들에 대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그분의 제자임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이 사랑을 나타내면 말입니다(요 13:34, 35).”

- 침례교와 캠벨 운동 교회들의 구성원들은 19세기에 연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 차례 만났지만, 침례교-‘캠벨파’ 갈등은 매우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1820년대 후반과 1830년대의 파문(破門)들은** 캠벨의 가르침들에 대한 신학적 반대를 체계화했고, 캠벨과 그의 사상들에 반대하는 기사들이 침례교 신문에 자주 등장하였다. 그러나 두 명의 화려한 침례교 지도자들인 **제레마이아 벨 제터(Jeremiah Bell Jeter, 1802-1880)**와 **제임스 로빈슨 그레이브스(James Robinson Graves, 1820-1893)**가 더욱 강렬하고 격렬한 반 캠벨 캠페인을 벌인 때는 **1850년대**였다.

캠벨(Campbell)과 제임스 로빈슨 그레이브스 (James Robinson Graves)와의 충돌

- 제임스 로빈슨 그레이브스는 매우 영향력 있는 남부 침례교 지도자이자 편집자였으며, 침례교의 지계석(Landmark) 운동의 창시자로 인정을 받았다. 1820년 버몬트에서 태어난 그레이브스는 3년 전 켄터키에서 침례교 목사 안수를 받은 후 1845년 테네시 주 내슈빌로 이주하였다. 그는 내슈빌의 제2 침례교회에서 목사로 잠시 사역하였고, 1846년 <테네시 침례자>(Tennessee Baptist)지의 편집자가 되었으며, 1889년까지 이 역할을 계속하였다.

- **그레이브스의 종교적 비난은** 결코 **알렉산더 캠벨**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내슈빌의 또 다른 주요 종교 단체인 감리교와의 싸움에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다. [각주6. 그레이브스는 **감리교** 신학과 정치에 대한 광범위한 공격을 저술했는데, 특히 *The Great Iron Wheel; or, Republicanism Backwards and Christianity Reversed* (Nashvill: Graves & Marks, 1855)와 두 개의 후속작에서 그랬다.] **로마 가톨릭**과 **장로교**에게도 같은 공격을 퍼부었다. [각주7. Patterson, James Robinson Graves, 59-71.] 게다가 그는 참된 교회의 표징들에 충실하지 않다고 믿었던 **다른 침례교도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비난하였고, 남침례교도들 사이에서는 지계석주의 (Landmarkism)에 대한 가장 전투적인 지지자였다.

- [지계석주의는 엄격한 침례교도가 참된 교회를 구성했으며 사도 시대 이후로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는 믿음이다. 이 교회들은 “오래된 지계석들”(landmarks)에 충실하였고, 따라서 수세기 동안 가톨릭 지도자들과 다른 배교 교회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다. 캠벨 자신도 퍼셀 주교와의 토론에서 자신의 운동에 대한 유사한 아이디어를 도입하였다.]
- 그러나 침례교 교회들이 캠벨 운동에 많은 수를 잃은 켄터키에서의 그의 경험과 그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과 그가 제2 침례교회의 목사가 된 후에 내슈빌의 침례교 생활에 캠벨주의가 일으킨 혼란에 대한 그의 인식은 캠벨과 캠벨주의에 대한 그의 공격을 더욱 격렬한 어조로 퍼붓게 하였다.

- 그레이브스는 2년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캠벨과의 전투를 위해 1851년에 무대를 마련하였다. <테네시 침례자>(Tennessee Baptist)지 12월 20일자에서 그레이브스는 플로렌스(Florence)라고 서명한 한 여성 통신원이 보낸 짧은 편지를 ‘여성부’에 실었다. 그녀는 그레이브스에게 왜 캠벨교도와의 교제를 거부했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렇게 하면 그녀가 이웃에서 “그들의 트집들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레이브스는 캠벨교도와 교제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침수세례를 받았지만 성경적으로 침례를 받지 않았고, 그들이 침례를 받기 전에 성령께서 그들을 거둬내게 하지 않았으며, 성경적인 교회에서 자격을 갖춘 자가 침례를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8주 후 그레이브스는 테네시 주 맥민빌(McMinnville)에 있는 한 그리스도의 교회(Christian Church) 교인으로부터 온 편지를 인쇄하였는데, 편지의 내용은 ‘캠벨라이트’의 개종에 대한 그레이브스의 묘사에 이의를 제기하며 정정을 요구한 것이었다. 그레이브스는 해당 교회들의 교사들이 말한 것을 그저 반복했을 뿐이라고 답하였다. 만약 그것이 허위 진술이라면, 그들이 그들 자신을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레이브스는 멤피스(Memphis)에 있는 한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가 최근에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찾아온 침례교인 몇 명에게 왜 재침례를 베풀었느냐며 반론을 제기하였다.

- [캠벨 운동의 많은 교회들은 특히 1830년대에 많은 발톤 스톤(Barton W. Stone)의 그리스도인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과 연합한 후 ‘그리스도인의 교회’(기독교회, Christian Church)와 ‘그리스도의 교회’(기독교회, Church of Christ)라는 속명(屬名)을 사용하였다. 캠벨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들’(Disciples of Christ)이라는 명칭을 선호하였다.]

- 논쟁은 이듬해 9월 그레이브스가 내슈빌 그리스도의 교회 (Nashville Christian Church)의 설교자인 제시 B. 퍼거슨 (Jesse B. Ferguson)이 발행한 <크리스천 매거진>(Christian Magazine)에 실린 도전장을 재인쇄하면서 계속되었다. 도전장을 쓴 사람은 그레이브스에게 캠벨이 침례 없이는 아무도 죄에서 용서받을 수 없다고 가르쳤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100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레이브스는 캠벨과 그의 운동에 참여한 다른 작가들의 글에서 채취한 인용문 35개를 제시하였는데, 그는 그것들이 침례 중생 (baptismal regeneration)에 대한 그들의 가르침을 확실히 증명한다고 믿었다.

- 그 논쟁은 1853년에 더 격렬해졌는데, 1월에 그레이브스가 1825년부터 1830년까지 내슈빌 소재 제일 침례교회(First Baptist Church)의 목사였던 필립 폴(Phillip Fall)이 도전장 원본의 저자이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교회를 캠벨주의로 강탈해간 자라고 폭로하면서 었다. 그 논쟁은 2월까지 계속되었고, 그레이브스는 폴(Fall)에게 공개 토론에 도전했지만 실패하였다.
- **캠벨주의를 공격하는 기사들은 이제 <테네시 침례자>(Tennessee Baptist)지(誌)의 표준적인 부분이 되었다.**

- 그레이브스는 만인구원론(보편구원론) 사상을 옹호하면서도 1856년 까지 내슈빌 그리스도의 교회(Nashville Christian Church)의 목회자로 남아 있던 제시 퍼거슨(Jesse Ferguson)에 대한 연재 기사를 시작하였다. 1853년 10월, 캠벨은 “S”로만 확인된 통신원의 편지를 발표했는데, 그 편지에는 그레이브스가 7월 16일 <테네시 침례자>에 기고한 심히 불쾌한 기사 내용이 인용되어 있었다. 그레이브스는 “우리는 침례교도들과 몰몬교도들보다 침례교도들과 캠벨인들 사이에 더 많은 동일점들이나 심지어 유사점들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외치고 나서, 예측하기를, 캠벨의 **“성령이 없는 물의 왕국”**[역자 주: 캠벨은 침례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딤후 3:5)의 장소 또는 시간 개념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주장은 왜곡된 것이었다.]이 곧 사라질 것이라고 하였다. “S”는 캠벨이 그레이브스에 즉시 답변할 것을 주장했지만 캠벨은 침묵을 지켰다.

- 하지만 11월호 <새천년시대의 선구자>(Millennial Harbinger)지에서 캠벨은 마침내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먼저 필립 폴(Phillip Fall)의 기사를 재인쇄하여 폴과 그레이브스 간의 토론에 대한 제안이 실패한 것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폴은 먼저 내슈빌에 있는 그레이브스의 사무실로 기사를 보냈지만 “수취 거절”이란 스탬프가 찍혀 반송되었다. 캠벨은 그레이브스를 신사도, 학자도, 그리스도인도 아닌 오만하고 자만심이 강한 청년이라고 일축하는 네 페이지 반 분량의 폭언을 시작하였다. “나는 그가 자신을 감추는 어설픈 궤변을 폭로할 시간도 없고 의향도 없습니다.”

- 그런 다음 캠벨은 자신의 정통성을 보여주기 위해 회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간략하게 진술하면서, “은혜, 보혈, 믿음, 회개, 침례는 신성한 은혜의 사슬에서 다섯 가지 황금 고리를 구성하며,” 모두 침례 행위에서 완성된다고 결론지었다. 캠벨은 자신의 발언을 <테네시 침례자>지에 실는다면 그레이브스에게 <새천년시대의 선구자>지에 동등한 지면을 할애하겠다는 제안으로 기사를 마무리하였다. 이 기사는 캠벨의 글쓰기 경력에서 가장 개인적이고 신랄하며 극단적인 언어를 등장시킨 그레이브스와의 저널리즘 싸움의 시작이었다.

- 그레이브스는 1854년 초에 캠벨과 그의 가르침을 비판하는 여러 기사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제임스 M. 하트(James M. Hart)가 쓴 “곤경에 처한 캠벨주의”(Campbellism in Trouble)라는 제목의 시리즈가 포함되었다. 4월에 캠벨은 그레이브스에게 또 하나의 강타를 날리면서, 자신의 견해들을 꾸란에 담긴 것들 만큼이나 터무니없다고 비난한 것에 대해 공격하였다. 사실, 캠벨은 그레이브스가 자신의 신념들을 왜곡한 것에 담긴 것보다 꾸란에 더 많은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레이브스는 캠벨이 전혀 가르친 적이 없는 것들을 가르쳤다고 비난했기 때문에, 캠벨이 아무리 진리를 말하려고 해도 침례교 편집자(Graves)는 믿을 수가 없었다.

- 캠벨은 자신의 그리스도교 정통성을 확립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보냈으며, 로버트 홀(Robert Hall), 앤드류 풀러(Andrew Fuller), 아치볼드 맥클린(Archibald McClean), 알렉산더 카슨(Alexander Carson)과 같은 존경받는 침례교 신학자들이 자신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인용하였다. “나는, 적어도 말하자면, 참된 침례교도들의 참된 정통의 참된 의미와 중요성에서” 그 지도자들 중 그 누구에게도 못지않게 정통적이다. 침례교 친구들이 그레이브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캠벨은 <테네시 침례자>지에 캠벨의 변호를 신는다면, 대신에 그레이브스가 한 말을 무엇이든 신겠다고 제안하였다.

- 그 다음 달에 캠벨은 그레이브스와 <테네시 침례자>지를 훨씬 더 극단적인 용어로 비난하였다. 제임스 M. 하트(James M. Hart)에 의한 시리즈와 그레이브스가 지난달부터 캠벨의 변호를 게재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 캠벨은 “그는 내가 아는 미국 내 종파주의 편집자 중 가장 어리석거나 가장 진실에 무모한 사람이다.”고 외쳤다. 캠벨은 그레이브스에게 자신에 대한 비난에 대한 자신의 답변을 게재하라고 더욱 강하게 압박하면서 그레이브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레이브스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그는 또한 대부분의 정직한 침례교도들은 그레이브스가 자신의 입장을 잘못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따라서 그레이브스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다시 주장하였다. 그 기사 바로 뒤에 짧은 ‘공지’가 실렸는데, 이는 캠벨이 독자들을 위해 그레이브스의 비난 기사를 인쇄했던 것처럼 그레이브스의 오류를 폭로하는 캠벨의 기사를 인쇄해 달라는 그레이브스에 대한 공식적인 도전이었다.
- 테네시 주에서 캠벨의 주장에 동조하는 침례교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었으며, 그레이브스가 캠벨에 대한 공격을 강화한 이유 중 하나임이 분명했다.

- 그레이브스는 침례교도의 주요 대변인이자 침례교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데 있어 주요 사상의 형성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테네시 주에서 캠벨에게 침례교도들을 빼앗기고 있을 뿐 아니라 감리교도들의 공격까지 증가하자 그레이브스는 침례교회의 경계들을 전체 교회의 경계들과 동일하게 정의하게 되었다. 그는 침례교회 전승설을 고수하였다. **침례교회 전승설이란 사도시대부터 끊어지지 않은 참된 (침례교) 교회들의 사슬이 존재하며 침례교회는 침례교회 밖에서 행해진 세례/침례들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침례교회만이 교회였고 다른 모든 교회들은 단지 종교 단체들일 뿐이었다.**

- 1851년 6월 24일 테네시 주 코튼 그로브(Cotton Grove) 침례교회에서 모인 침례교 지도자들의 그룹은 그레이브스의 견해들을 모아 일련의 결의문들로 작성하고 승인하였다. 그의 동료인 **제임스 매디슨 펜들턴(James Madison Pendleton)**은 1854년에 이 원칙들을 **〈옛 지계석 리셋〉(An Old Landmark Reset)**이라는 제목의 소책자에 출판했는데, 여기서 **지계석주의(Landmarkism)**라는 이름이 유래하였다. 지계석 입장에 대한 그레이브스의 호전적인 옹호는 실제로 그의 급진적인 입장을 거부한 상당수의 침례교도들로부터 그를 소외시키곤 했고, 캠벨은 이 사실을 나중에 그레이브스에 대항하여 사용하곤 하였다.

- 그레이브스와의 분쟁이 다시 불거지기까지 두 달이 지났다. 캠벨은 <새천년시대의 선구자>(Millennial Harbinger)지 8월호에 게재된 ‘테네시 주 침례교도들을 위한 글들. 제1호’(Tracts for Tennessee Baptists. No. I)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그레이브스가 마침내 캠벨 자신의 신념을 옹호하는 4월의 기사를 자신의 <테네시 침례자>지에 게재했지만, 그레이브스가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일곱 배나 많은 글을 써서 캠벨이 <새천년시대의 선구자>지에 게재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며 격하게 불평하였다. 캠벨은 그레이브스에게 그레이브스가 쓸 모든 글을 실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지면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음을 상기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벨은 독자들에게 그레이브스의 “단어들과 중상모략들이 담긴 방대한 칼럼들을 몇 가지 수정과 해설을... 곁들여 계속 제공하였다.”

- 그레이브스는 캠벨의 4월 기사를 처음 읽었을 때, 그 기사에는 자신에 대한 인신공격이 가득했고 실질적인 주장이 전혀 없어서 그냥 접어뒀었다는 설명으로 글을 시작하였다. 나중에 다른 저널에서 그 기사에 대한 언급을 보고 다시 읽었을 때, 캠벨이 그를 만난 적도 없고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캠벨이 쏟아낸 “욕설과 비난, 무모한 주장들의 격론”에 격노하였다. 그레이브스는 침례교도들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캠벨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그것은 <테네시 침례자>지가 “당신들의 체계의 완전한 부패와 기만성..., 19세기의 대배교”를 폭로하는 데서 주의를 돌리기 위한 전술이었다고 했다.

- 그레이브스는 이어서 미국성서공회(American Bible Union)가 현대 영어 침수세례주의자 번역본을 제작하는 일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였다. 성서공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침례교도들은 캠벨주의를 정통으로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죄 사함을 위한 침례를 가르친다는 점에서 이단이었다.
- 캠벨은 그런 다음 거의 10페이지를 할애하여 자신의 믿음(신념)이 고대 그리스도교의 믿음(신념)과 실천(관행)에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그는 대부분의 현대 그리스도교 세계가 이에 동의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그레이브스가 자신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풍자하고, 신비화했다고 공격하며 글을 마무리하였다.

- 그는 자신의 〈그리스도교 체계〉(Christian System)나 〈그리스도인 침례〉(Christian Baptism)를 주의 깊게 읽은 침례교도라면 그레이브스의 “복음주의적 파괴주의”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새천년시대의 선구자〉 9월호에는 캠벨의 두 번째 “글들”(tracts)이 실렸는데, 19페이지에 걸쳐 앞뒤로 신랄한 비난들과 꼬리표가 달렸다. 그레이브스는 계속해서 〈테네시 침례자〉지를 이용해 캠벨의 개혁을 막으려 했고, 침례교 신학자 **알렉산더 카슨(Alexander Carson)**의 말을 인용해 침례에 대한 캠벨의 견해에 반대하였다. 캠벨은 그레이브스가 〈테네시 침례자〉지를 통해 침례교 사상에 영향을 끼쳤다는 부풀려진 생각을 조롱했고, 침례와 중생에 대한 자신의 정통성을 또 한 번 옹호하였다.

- 10월에 게재된 세 번째 글 역시 마찬가지로였다. 그레이브스는 존경받는 침례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정통 복음주의로 지지했다는 캠벨의 주장을 반박하려고 했다. 그레이브스는 “나는 그것의 ‘조금’이나 ‘제목’을 믿을 수 없다”고 외쳤고, 대부분의 침례교도들은 그것을 날조로 여길 테지만 자신은 오직 캠벨의 주장을 “배신적이거나 실패한 기억”으로 치부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하였다. 캠벨은 그레이브스가 거짓말이라는 이 비난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선구자>지에 그레이브스의 다른 어떤 글도 게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격하였다. 더욱이, 서로의 기사들에 대한 일련의 검토가 완료되면, 심사위원단이 배석한 공개 토론이 아닌 이상 그레이브스와 더 이상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 다음 달에 캠벨은 ‘테네시 침례교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이라는 제목의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였다. 첫 번째 기사는 1853년에 캠벨의 견해에 공감하는 침례교도인 H. O. 스미스 (H. O. Smith)가 그레이브스에게 쓴 개인 편지로 구성되었다. 그 편지에서 스미스는 그레이브스가 캠벨을 잘못 표현했다고 질책하였다. 그레이브스는 <테네시 침례자>지에 그 편지를 게재하기를 거부하였지만, 스미스는 그레이브스의 답변과 함께 원본 편지 사본을 캠벨에게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 스미스는 그레이브스가 캠벨을 근본주의 침례교 가르침들에 반대하는 인물로 부정확하게 묘사했다고 주장하였다.

- 사실, 캠벨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다고 믿었고 침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믿었지만, 그것은 정통 침례교도들이 믿었던 바로 그 가르침이었다. 사실, 침례교도들이 믿는 이것과 유사한 가르침들은 그레이브스가 자신의 지계석 캠페인을 통해서 침례교 신앙에서 제거하려고 했던 바로 그 가르침들이었다. 그레이브스는 스미스에게 보낸 답장에서 캠벨주의는 이미 수명을 다한 “폭발한 도그마”라고 일축하였다. 캠벨은 두 편지를 모두 인쇄하면서 그레이브스의 저속하고 비열한 궤변은 답장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만 언급하였다. 하지만 캠벨은 또한 스미스와 그레이브스 사이에 오간 몇 가지 다른 교류 내용을 입수했으며 다음 호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같은 호의 후반부에서 캠벨은 그레이브스가 전장에서 후퇴했다고 비난하며, 자신이 그를 상대로 쓴 최근의 기사들을 그가 어떤 것도 게재하지 않음으로써 그가 패배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독자들에게 그레이브스의 신학과 행동을 공격하는 테네시 침례교도들의 성명을 더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들은 캠벨이 친교하던 반-지계석 침례교도들이었다.
- 흥미롭게도, 그 호의 마지막에, 작은 글씨로 된 짧은 성명에서 캠벨은 자신이 몇 개의 문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것들을 공개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당장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은근히 발표하였다. 그는 자신의 지지자들 중 일부가 자신에게 그레이브스의 가혹한 공격에서 물러서라고 촉구했기 때문에, 자신이 “악명을 얻으려는 허영심 많은 열망자들”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없다고 암시하였다.

- 그는 또한 테네시 주의 내슈빌과 다른 지역들을 방문해달라는 긴급한 요청으로 인해 11월과 12월에 그곳을 방문하는 것을 고려하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내슈빌을 방문한 주된 이유는 제시 B. 퍼저슨(Jesse B. Ferguson) 목사가 보편주의(만인구원설)와 영성주의를 받아들인 후 큰 분열을 겪은 내슈빌 그리스도의 교회(Nashville Christian Church)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역시 내슈빌에 살았던 그 레이브스와의 캠벨의 충들은 캠벨로 하여금 그의 글쓰기 경력에서 가장 가혹하고, 가장 악의적이며, 과장된 언어 중의 일부를 게재하도록 밀어붙였다.

- “악명을 얻으려는 허영심 많은 열망자들”처럼 되지 말라는 경고는 결국 캠벨에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다음 달 호에서 **캠벨은 그레이브스의 ‘침묵’을 사실상 패배를 인정한 것**이라고 모욕적인 묘사를 하며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하였다. 그는 H. O. 스미스(H. O. Smith)의 두 번째 서신과 그레이브스(Graves)의 응답을 또한 게재하였고, <테네시 침례자>지에 저항하는 캠벨의 입장에 찬사를 보내고 또 캠벨의 중생론을 지지하는 제이콥 크리스(Jacob Creath)의 편지, 그레이브스를 지지하고 캠벨을 비난한 덕 리버 침례교 협의회(Duck River Baptist Association)의 조롱 기사, 그리고 “중생”이란 용어에 관한 짧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분명히 캠벨은 이 일을 매우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논란에서 손을 뺄 권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 1855년 2월호 <새천년시대 선구자>지에서 캠벨은 몇 주 동안 그레이브스로부터 아무 소식도 받지 못했지만 그레이브스가 H. O. 스미스(Smith)를 비난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스미스가 그레이브스와 나눈 서신을 자신에게 준 것 때문이었다고 짧게 언급하였다. 캠벨은 침례교 목사 J. H. 하이(High)가 보낸 서신을 게재하였는데, 하이는 테네시 주의 대다수 침례교도가 여전히 “영적 영향들, 중생 등에 대한 옛 침례교의 추상(형이상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서부 테네시의 가장 대표적인 회중들은 스미스(와 캠벨)가 믿었던 것을 믿었다고 주장하였다.

- 캠벨은 내슈빌 방문 보고서 부분에서 켄터키 주 러셀빌(Russellville)에 거주하는 <새천년시대 선구자>지 정기구독자들인 몇몇 침례교도들이 그레이브스의 행동에 대해 자신에게 사과했다고 보고하였다. 캠벨은 진실하고 명예로운 이들 침례교 친구들과는 대조적으로 그레이브스를 그리스도인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 4월에 캠벨은 다음 호에서 그레이브스가 자신에게 가한 가장 최근의 공격을 폭로하고 그 후에는 그에 대한 더 이상의 공지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캠벨은 그레이브스를 40년 동안 사역하면서 본 “전적 타락에 대한, 그 어휘의 생생하고 형식적인 발전에서, 최고의 정의 중 하나”로 묘사하였다. 캠벨이 분노하기 시작한 J. B. 제터(Jeter)조차도 그레이브스와 어울리는 것을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캠벨은 말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레이브스가 캠벨의 알렉산더 카슨 (Alexander Carson)의 견해에 대한 그레이브스의 주장에 도전한 약속된 “최종” 기사의 끝부분에서, 캠벨은 한 번 더 도전할 수밖에 없었다. 만일 그레이브스가 양쪽의 주장들을 각자의 간행물에 온전히 게재하는 것을 허용하고, 명예로운 토론의 규칙을 따르며, “세 명의 존경받는 침례교 형제들”의 지지를 확보한다면, 캠벨은 그리스도교의 모든 교리 이슈에 대해 “한 줄 한 줄, 한 쪽 한 쪽” 그와 기사들을 교환하겠다고 하였다.

- 그레이브스에 대한 몇 가지 공지들이 <새천년시대 선구자>지에 계속 게재되었다. 9월에 캠벨의 공동 편집자인 W. K. 펜들턴(W. K. Pendleton, 그레이브스의 지계석주의 동료인 J. M. 펜들턴과는 관련이 없음)은 캠벨이 뉴올리언스에서 죽었다는 소문을 반박하고, 당시 켄터키 주 침례교 협의회 총회 의장이었던 사무엘 W. 린드(Samuel W. Lynd) 박사가 캠벨을 옹호하는 글을 써서 <테네시 침례자>지에 실게 서신을 다시 게재하였다. 11월과 12월에 캠벨은 다른 침례교 신문들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기사들을 언급했지만, 캠벨은 그들을 일축하며 그레이브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자들이 “가공할 그레이브스 씨와 그의 동료 펜들턴에게 바치는 화목제물!!”이라고 하였다.

- 1860년 그레이브스는 침례에 대한 가르침들과 실행에 관한 논의에서 캠벨의 개혁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그레이브스는 캠벨이 1812년 침례를 받았을 당시에는 침례가 죄 사함과 심령에 중생을 가져온다는 개념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캠벨은 이제 침례교회들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캠벨 씨 그 자신은, 자기 자신의 재판관으로서, 결코 성경적으로 침례를 받지 않았고, 그의 초기 목회자들이나 추종자들 중 누구도 침례를 받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불순한 샘에서 순수한 시냇물이 흘러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시대의 캠벨주의자들은 모두 침례를 받지 않았고 침례를 베풀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그 교파 전체가 침례를 받지 않았으므로 어떤 의미에서도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다.”**

캠벨(Campbell)과 제레마이아 벨 제터(Jeremiah Bell Jeter)와의 충돌

- 그러나 이 무렵 또 다른 저명한 침례교 지도자가 캠벨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다. 제레마이아 벨 제터(Jeremiah Bell Jeter)의 <캠벨주의 검토>(Campbellism Examined)가 1855년에 처음 출간되었고, 1858년에 두 번째 인쇄본이 나왔으며, 1860년에는 원본과 함께 94페이지 분량의 <캠벨주의 재검토>(Campbellism Re-examined)라는 제목의 부록이 인쇄되었다. 제터는 리치먼드(Richmond)에 있는 제일 침례교회를 비롯한 여러 버지니아 침례교회들에서 목회자로 섬겼으며, 남북전쟁 이후에는 버지니아 침례교 신문인 <신앙 전령>(Religious Herald)지의 공동 편집자로 섬기기도 하였다.

- 1852년에 제터는 존경받는 침례교 지도자 **앤드류 브로드더스 (Andrew Broaddus)**의 생애에 대한 60페이지 분량의 회고록을 브로드더스의 설교들과 서신들의 모음집으로 출판하였다. 제터의 회고록은 브로드더스가 알렉산더 캠벨과 개혁자들과 교류한 것과 브로드더스가 캠벨의 “침례 중생”(baptismal regeneration)에 대한 견해를 결국 거부한 것에 상당한 공간을 할애하였다. 브로드더스에 따르면 캠벨의 거짓 교리에는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役事) 없이 복음의 사실들에 대한 지적인 동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 침례 행위 속에서 이뤄지는 회심과 중생 그리고 침례 후에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포함되었다.**

역자 주

- **브로드더스와 제터를 비롯한 상당수의 침례교도들이 당시에 칼뱅주의를 받아 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협력)’을 부인하였다.**
- 그들이 말한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役事)”**란 예정되고 선택된 자를 부르시는 거절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성령(하나님)의 은혜와 조명(照明)을 말한다. 또 그들에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딤후 3:5)**과 같은 것이 예정과 선택으로 구원이 만세 전에 결정된 자들에 한해서 성령께서 거절할 수 없게 무조건적으로 믿음과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믿는 순간에 이뤄진다고 보았다.

역자 주

- 그러나 믿음에는 신뢰의 믿음, 동의(복음의 사실들에)의 믿음, 교리(신조)의 믿음, 은사의 믿음이 있다. 이것들 중에 구원하는 믿음은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복음적 사실들에 동의하는 믿음을 말한다.
- 대부분의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이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성령께서 설교, 전도, 성경말씀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자발적인 응답 또는 협력으로 본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간이 응답하는 자유의지 또는 인간의 지성적 또는 지적인 동의가 있다고 본다.
- 그러나 칼뱅주의자들은 하나님(성령)께서 예정되고 선택된 자들만을 제한적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고 무조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인하는 것이다.

역자 주

- 그러므로 캠벨이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役事) 없이 복음의 사실들에 대한 지적인 동의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고 한 부분은 잘못된 지적이었다.
-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성령께서 설교나 전도 또는 성경말씀 등을 통해서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부름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 캠벨이 “침례 행위 속에서 이뤄지는 회심과 중생... 받는다”고 했다는 지적은 캠벨이 침례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딤후 3:5)의 장소 또는 시간 개념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역자 주

- 그러나 “**침례 후에만 성령을 받는다**”고 했다는 것은 왜곡된 지적이었다.
- **침례의 행위 속에서**(“in baptism”, 골 2:12) 이미 성령께서 구원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이다.
- **캠벨은 구원(칭의, 죄 사함)이** “그 은혜에 의하여(근원) 믿음으로 말미암아(수단, 통로)”(엡 2:8) “**침례 가운데서(시간, 장소)**”(골 2:12) “**선한 일(목적, 성화)을 위하여**”(엡 2:10) 이뤄진다고 보았다.
- **그리고 성화를 위해서** 성령을 선물(성령의 내주와 동거, 구원의 보증과 인침으로)로 주신다고 믿었던 것이다.

- 제터가 브로드더스의 회고록에서 캠벨을 간략하게 다루자, **침례교 지도자 12명으로 구성된 그룹**이 그에게 “제자 또는 캠벨파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종파의 부상, 발전, 성격 및 영향”에 대해 더 폭넓게 다뤄달라고 청원하였다. **<캠벨주의 검토>Campbellism Examined**는 **제터의 대응**이었다. 제터는 먼저 캠벨이 자신의 운동에 대해 “개혁”과 “고대 복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 다음, 자신이 폭로하고자 하는 거짓 교리에 대해 가장 정확한 용어로 자신이 **“캠벨주의”(Campbellism)**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을 변명하였다. 그런 다음 그는 캠벨주의의 시작, 발전, 가르침들과 경향들을 검토하였고, 요약하여 결론을 내렸다.

- 제터는 1825년에 캠벨을 처음 만났고 그 이후로 캠벨의 저술과 영향력을 주의 깊게 따라왔다고 말하였다. 그는 자신의 평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캠벨의 저술과 설교를 광범위하게 인용하였다. 캠벨이 유능한 편집자였고 그의 개혁이 다른 교파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제터는 캠벨의 태도와 특이한 교리들이 분명히 바로 그 방향으로 경도(傾倒)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제터는 성직자와 신조들에 대한 캠벨의 공격과 회중(교회)외 조직들의 불법성에 대한 캠벨의 주장을 검토하였다. 제터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복음의 확산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데 방해가 되었고 침례교 지도자들 사이에 불안을 조성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 다음 제터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의 안수와 같은 신앙 체험과 성스런 의식들을 조롱한 캠벨의 조소적이고 풍자적인 스타일을 검토하였다.

- 다음으로 제터는 **침례교회들의 사역을 위해 파괴적인 캠벨의 개혁자들을 몰아내는 것이 왜 필요했는지를 설명**하였다. **성령의 역사, 침례와 교회의 성격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들과 캠벨의 교리들이 불리일으킨 갈등이 합쳐져서 복음과 침례교회의 확산을 방해할 뿐이었다.** [역자 주: “거짓된 가르침들”이란 비성경적이란 뜻으로 보기 어렵고 단지 비침례교적이란 뜻으로 이해된다.] 제터는 도버 침례교 협의회(Dover Baptist Association)를 사례 연구로 삼아 캠벨 개혁자들이 침례교에서 분리된 역사를 설명했는데, 이는 제터 자신이 이 분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 일이었다.

- **“원리들로 본 캠벨주의”(Campbellism in Its Principles)**라는 제목의 부분에서 제터는 **캠벨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요한 원리들에 헌신한 것을 칭찬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캠벨과 로버트 오웬 (Robert Owen)의 토론은 캠벨이 **성경의 신빙성과 영감,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원리들”에 대한 일관된 믿음을 보였다고 제터는 주장하였다.** 가톨릭 주교 존 뱍티스트 퍼셀 (John Baptist Purcell)과의 토론은 캠벨이 **“모든 개신교도들이 공통으로 갖는 많은 진리들”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 확증하였다.** 그리고 솔직하게 제터는 캠벨이 **일부 침례교의 핵심 원칙들, 특히 신자들의 침수세례와 교회 회원 자격의 중요성을 옹호한 챔피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 그러나 캠벨의 개혁 운동을 해롭게 하고 그와 그의 추종자들을 위협하고 파괴적인 세력으로 만든 것은 그의 **“성경적 근거 없는” 가르침들이었다.** 그런 다음 제터는 캠벨주의자들의 치명적인 오류들을 식별하였는데, **성령이 성경 말씀들을 통하지 않고는 회심 중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가르침부터 시작하였다. 제터는 캠벨이 **중생, 회심, 침례를 동일시했다**는 비난을 계속하였고, 이어서 기도가 침례 받지 아니한 자들의 의무가 아니며 **주의 만찬은 매주 거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포함하여 캠벨주의자들의 다른 허위들을 나열하였다. [역자 주: 캠벨의 가르침들에 “성경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주관적 종파적 판단일 뿐이고 잘못된 전통과 아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캠벨은 “중생, 회심, 침례를 동일시”한 것이 아니라 침례를 중생과 죄 사함이 공식적으로 선언되는 시간과 장소 개념으로 본 것이었다.]

[역자 주]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의 침례와 구원의 상관관계

- 그리스도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의 표어들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우리만이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인들 뿐이다(We are not the only Christians, but Christians only.)”이다. 이 표어가 나오게 된 배경에 알렉산더 캠벨의 신학적 입장이 담겨 있다.

[역자 주]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의 침례와 구원의 상관관계

- 캠벨은 개인적으로 유아세례를 비성서적이며 인위적인 교회전통이라고 생각하여 반대하였다. 하지만 그것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로 믿으면서 1849년 3월에 “나는 이 의식 [유아세례]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있다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 [Millennial Harbinger(1849), p. 131.]라고 하였다. 캠벨은 그 이유를 “우리는 모든 개신교 교단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하기 때문이다(FOR WE FIND IN ALL PROTESTANT PARTIES CHRISTIANS)” [“Letters to England-No. 1,” Millennial Harbinger(June 1837)]고 하였다.

[역자 주]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의 침례와 구원의 상관관계

- 또 캠벨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성인, 혹은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있는가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유아’ 혹은 믿음의 걸음마 단계에 있는 사람 혹은 불완전한 그리스도인도 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사람이나 불완전한 사람 모두를 인정한다.... 그러면, 신앙 고백에 따라 받는 침수세례를, 그것이 비록 성화와 안위에 대단히 본질적일지라도,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인 본질로 만들 이유(occasion)는 없다. 나의 오른쪽 손과 오른쪽 눈은 나의 소용과 행복에 대단히 본질적이다. 그러나 나의 생명에는 그렇지 않다.

[역자 주]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의 침례와 구원의 상관관계

- 그것들 없이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침수세례의 진실 되고 성경적인 의미와 목적대로 바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수용함이 없이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거기에서 침수세례자 이외에는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없다고 추측하는 사람은 분명하고 온전한 시력을 가진 자 이외는 산 사람이 없다고 단언하는 사람만큼이나 큰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Lunenberg," Millennial Harbinger(July 1837)고 하였다.

[역자 주]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의

침례와 구원의 상관관계

- 캠벨에게 있어서 침례의 형식적 개념은 시간적 장소적 개념으로써 이 해되는 한편, 침례의 실질적인 효력은 성령의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 속에서 파악된다. 그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은 사죄 은총의 수단이요, 침례는 단순히 사죄에 대한 확신의 수단일 뿐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칭의의 수단이요, 침례의 목적은 “사죄 즉 용서의 서약,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장사되고, 새 생명으로 일어난 부활의 확신”이다
[Millennial Harbinger(1849), p. 62.] 그러므로 침례는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서 나타난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쪽에서 볼 때는 엄숙한 인침과 서약과 공식적인 확신이다.[Christian Baptism, p. 205.]

[역자 주]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의

침례와 구원의 상관관계

- 캠벨은 이점을 다음의 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효능은 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백된 믿음 가운데 있다. 따라서 침례를 통해서 받는 죄 사함은 물이나 침수 때문이 아니라, 피침례자가 고백하고 소유한 믿음 때문이다. 침례는 그 자체가 죄 사함이 아니라, 죄 사함에 대한 표지요, 서약이다. 물이나 침수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침례는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우리의 관심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며,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죄 사함의 인침일 뿐이다. [Millennial Harbinger(November 1849), p. 611.]

[역자 주]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의 침례와 구원의 상관관계

- 이로부터 20년 전 그는 이미 믿음의 중요성과 구원의 수단 또는 매체로써의 믿음을 피력한 바 있고, “믿음은 진실로 죄 사함을 구할 수 있는 근원적 매체이다”[Christian Baptist(June 1828), p. 255.]라고 했다. 때문에 침례는 믿음으로부터 그 모든 가치를 부여 받을 수 있고, 침례는 믿음의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고백이다. 그러나 “믿음 그 자체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떠나서는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Christian Baptism, p. 221.]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믿음, 침례는 상관적이다. 그래서 캠벨은 “칭의, 성화, 양자됨이 ... 복음적으로 주 예수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침례 속에서 나타난 믿음과 연결 된다.”[Christian Baptism, p. 229.]고 했다.

[역자 주]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의 침례와 구원의 상관관계

- 이러한 맥락에서 알렉산더 캠벨도 “침례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도, 도덕적 의무도, 도덕적 의로움도 아니며, 단순히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며,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그분의 손에,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 맡기는 것이다.” [Christian Baptism p. 229.]고 하였다. 때문에 믿음 없는 침례는 어떠한 경우라도 무가치하다. 진실로 침례는 믿음에 대한 실질적이며 상징적인 고백이다. 이는 루터가 약속과 믿음을 떠나 성례의 효력을 구하는 것은 헛된 수고라고 한 말과 상통하는 것이다.

[역자 주]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의 침례와 구원의 상관관계

- 마지막으로 알렉산더 캠벨은 하나님의 은총을 근원적이고 역동적인 원인, 그리스도의 보혈을 구원을 위한 공덕원인, 믿음을 구원을 받는 도구적 원인, 침례를 모든 영적 축복을 받는 시간이다 라고 말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4대 요소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로,” “선한 일을 위하여”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은혜를 구원의 바탕으로, 믿음을 수단으로, 침례를 시간으로,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캠벨은 살아생전에 성경의 권위와 가르침을 회복하려 (To restore the ancient order of things) 했고,

[역자 주]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의

침례와 구원의 상관관계

- 그 하나로 침례를 택하였던 것이며, 침례의 방법, 대상, 목적을 통해서, 침수세례를 방법으로, 회개한 신자를 대상으로, 죄 사함을 목적으로 할 때, 진정한 성경적 그리스도인 침례 (biblical Christian baptism)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방법과 대상과 그 목적을 다르게 세례(sprinkling) 하는 교단 신자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는 관용의 정신을 발휘하였다.

[역자 주]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의

침례와 구원의 상관관계

- 다만 상호간의 다름을 알고 다름을 인정하는 것과 옳음을 파악하고 옳음을 주장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옳음을 파악하고 옳음을 주장하는 것은 정(正)에 반(反)하여 합(合)을 이루는 변증법적 발전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알렉산더 캠벨은 인위적 전통(正)을 개혁(反)하여 신성한 성경, 특히 신약성경교회의 것들(초기 교회의 믿음과 실천)을 회복시킴으로써 분열된 그리스도교의 합(一致)을 도모하였다.

- “학문으로 본 캠벨주의” 부분에서 제터는 **캠벨이 장려한 그리스도인 연합의 잘못된 기반** 곧 아리우스주의, 유니테리언주의, 보편주의(만인구원론)와 같은 파괴적인 이단을 장려할 근거(platform)라고 자신이 믿는 것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제터는 캠벨이 건전한 삼위일체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조롱하고 협의회들, 대학들, 교육받은 사역을 반대함으로써 복음 전파를 방해했다고 비난하였다. 그는 캠벨이 그리스도교 세계에 사과하고 자신의 “이단적 정서”를 거부할 것을 촉구하며 글을 마무리하였다. [역자 주: 제터의 이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캠벨은 단일신론과 만인구원론을 반박하였고, 버팔로 신학교(Buffalo Seminary, 1818-1823)와 베다니 대학(Bethany College, 1840-present)을 설립하여 가르쳤으며, 교단 조직인 미국 그리스도인 선교회(America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 1849) 회장을 역임하였기 때문이었다.]

- 캠벨은 제터의 책 한 권을 받자마자 광범위한 반박문을 쓰기 시작하였다. 1855년 2월 <새천년시대 선구자> (Millennial Harbinger)지에서 캠벨은 제터의 서문 일부를 인용하고 제터가 자신이 하려고 한다고 주장한 일을 할 만한 자격을 “본성으로든, 은혜로든, 교육으로든” 갖추지 못했다고 비난하였다. 캠벨은 1825년 도버 침례교 협의회(Dover Baptist Association)의 모임에서 제터를 만났을 때를 회상하며, 그 젊은이에게 “성직자로 성별”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였다.

- 제터(Jeter)는 지계석주의를 추종하는 자가 아니었다. 제터는 그레이브스의 교회관을 비판하는 기사를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벨의 회심과 침례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그의 비판은 J. R. 그레이브스(Graves)의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캠벨의 대응은 자연스럽게 그레이브스에게 행한 것과 동일하였다. 그러나 그레이브스에게 맞선 대응과 달리 캠벨은 제터를 일찍부터 형제로 여겨왔다고 말하였다. 캠벨은 제터가 자신을 반박하는 임무에 적합하지 않지만 그를 친구이자 “매우 존중할만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 캠벨은 회심에서의 성령의 역할에 대한 제터의 견해에 도전하였고, 자신이 침례 중생을 가르쳤다는 비난을 반박하였으며, 신앙 체험과 중생에 대한 제터의 견해를 공격하였다. 초기에 제터를 높게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캠벨의 기사들은 점점 더 제터가 자신의 신념들에 대해 부정적이고 무지하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10월에 시리즈의 마지막 기사에서 캠벨은 자신이 제터의 요점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음을 고백하였다. 캠벨은 자신의 다른 많은 책임들 때문에 그 건에 집중할 수 없었다고 불평하며, 자신이 쓴 글들이 단절적이고 반복적이었다고 설명하였다. **제터의 책이 왜곡, 오해, 허위 진술로 가득 차 있고** 그 자체로 장점이 거의 없었지만, 많은 침례교 성직자들이 그것을 지지했기 때문에 캠벨은 그것이 검토서(檢討書)로 불릴만하다고 믿었다. 그래서 캠벨은 <새천년시대 선구자>지에서 2~3개월간 시리즈를 중단하고 그런 책을 쓰자고 제안하였다.

- 5개월 후, 1856년 3월호 <새천년시대 선구자>지에서 캠벨은 제터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준비 중이라고 반복하였고 제안된 책에 대한 서문까지 게재하였다. 하지만 그 책은 출판되어 나오지 않았다. 6월에 캠벨은 주 6일 강의, <선구자>지에 게재할 기사작성 및 편집, 방대한 양의 서신을 읽고 답장하기, 신앙 간행물들의 광범위한 독서 등 자신의 빡빡한 일정에 대해 불평하는 간단한 메모를 게재하였다. 제터는 몇 주 전에 <캠벨주의 재검토>(Campbellism Re-examined)라는 제목의 94쪽 분량의 후속 저서를 출간하였다. 캠벨은 “더 중대하고 중요한 비평작업”을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제터의 책을 두 쪽 정도밖에 읽지 못했다고 인정하였다. 캠벨은 독자들에게 제터에 대한 답변에 대해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하였다.

- 그러나 결국 캠벨은 포기하였다. 캠벨은 1857년 2월호에 발표하기를, 베다니 대학(Bethany College)을 졸업한 젊은 모세스 E. 라드(Moses E. Lard)에게 그해 후반기에 필라델피아에서 출판될 수 있도록 <캠벨주의 검토>(Campbellism Examined)에 대한 리뷰를 써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했다. 라드는 만일 캠벨이 더 중요한 업무들에 압도되지 않았다면 캠벨이 해냈을 만큼의 훌륭한 리뷰를 분명코 자신 쓸 수 없었다는 점을 진술하는 것으로 자신의 리뷰를 시작하였다. 라드는 제터의 책이 나온 지 2년이 지났고 제자들의 발전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을 저술하는 데 급한 마음이 없었다고 설명하였다.

- **캠벨은 라드가 저술한 책에 대한 간략한 서문에서 제터가 처음에 <캠벨주의 검토>를 쓴 이유는 예수를 믿는 단순한 신앙고백만으로 사람들에게 침례를 줌으로써 수많은 침례교도들이 침례를 받기 전에 회심 체험을 말해야 한다는 필요 조건을 생략하는 것에 대한 불안 때문이었다고 주장하였다.**

- 라드는 자신의 작품의 어조를 캠벨이 대응했던 방식으로 했다. 라드는 제터의 책을 스타일이 “우둔하고 입씨름하듯 하며” “책의 생각이 좁고, 주장이 전혀 없으며, 성찰이 진부하고 얇으며, 분위기가 헛되고 가식적이며, 정신이 위선적이고 비열한” 것으로 기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이런 검토가 필요했던 것은 제터의 책이 취한 건강부회(牽強附會) 형태 대신에 캠벨의 신념들(신앙)의 세계를 정확한 그림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 2장과 3장에서 라드는 회심 중 성령의 사역에 대한 캠벨의 견해에 관련하여 〈캠벨주의 검토〉에 나오는 주장들을 나열하고 반박하였다.

- 라드는 이어서 침례에 대한 캠벨의 가르침에 대한 제터의 공격을 검토하였고, 캠벨이 실제로 믿었던 것을 해설하였으며, 제터가 이런 신념들에 제기한 반론들을 다시 반박하였다. 라드는 아르미니우스주의 및 **정통으로 보이게 하려는 점증하는 캠벨주의 욕망이라고 한 비난들**을 반박하면서 책을 끝냈고, 제터의 책은 “보상할 만한 특성이 하나도 없는 나쁜” 책이라는 주장으로 마무리하였다.
- 1860년, J. R. 그레이브스의 사우스웨스턴 출판사(Southwestern Publishing House)는 제터-캠벨 논쟁에 대한 마지막 기사를 발표하였다. 미주리 침례교인 **앨빈 피터 윌리엄스(Alvin Peter Williams)**는 **〈캠벨주의 폭로〉(Campbellism Exposed)**라는 제목의 책에서 라드의 **〈리뷰〉(Review)**에 대응하였다. 윌리엄스는 논쟁의 전 과정에서 드러난 논쟁들을 지루하게 되풀이하면서 인신공격을 이어갔다.

- 1850년대의 10년은 캠벨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었다. 1853년부터 1855년까지 그는 1830년대 [침례교와의] 분리 이후 침례교도들에 의해 자신의 신념(신앙)들에 대해서 가장 집중적인 공격을 겪었다. 1855년 제시 B. 퍼거슨(Jesse B. Ferguson)의 영성주의와 보편주의(만인구원설) 사상으로 인한 내슈빌 교회에서의 위기와 베다니 대학 학생들 사이에서 노예제도에 대한 주요 혼란은 67세의 “주교”의 불안을 증가시켰다. 그는 그것을 무시하려고 했지만, 그러한 사건들은 사도시대의 믿음과 실천(the ancient gospel and order of things)의 승리에 대한 캠벨의 희망찬 기대를 약화시키고 있었다.

역자 후기

- 지나치게 뜨겁거나 찬 것에 접촉되면 거부반응이 나타나듯이 급격한 혁명이나 개혁에는 반드시 반발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세월 앞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겠는가? 어떤 종교나 교파의 교리도 처음의 것과 지금의 것이 같지 않다. 처음에는 승리주의로 시작했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승리주의를 멀리한다. 지계석주의도 마찬가지로 과정의 과정을 거쳐 사라져졌다. 정상적인 교단에서는 승리주의나 배타주의를 멀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소수 세력들, 특히 말씀보존학회와 같은 곳에서 ‘나만 옳다’는 식의 승리주의가 팽배하여 신념이 다른 교회들을 헐뜯고 있어서 슬프지 않을 수 없다.